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 ▶▶ [이달의 인물] 유튜브 이돌ID 진주여고 1학년 남예은
- ▶▶ [특집/ 2019년 필통 표지인물] 2019 월별 이달의 인물
- ▶▶ [특집] 필통 선정 2019년 청소년 10대 뉴스
- ▶▶ [학교소식] 진명여중 미니 체육대회로 꿈과 끼 펼쳐요
진양고 국내 최초 공정무역 학교 선정
진주기계공고, 감전방지 콘서트 특허 출원
- ▶▶ [현장취재] 진주 최초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인기
- ▶▶ [특집/맷칸년맷반] 진주제일여고 2학년 2반 편
진주고등학교 2학년 2반 편
- ▶▶ [특집/ 맷칸년맷반-신청] 명신고등학교 1학년 4반 편
경상사대부고 1학년 3반 편
- ▶▶ [특집] 2020 필통 청소년 설문조사
- ▶▶ [틴틴이슈] 범죄연예인 출연금지법 논란
- ▶▶ [진주투어] 추워지는 날씨~ 찜질방 어떤가요?
- ▶▶ [필통 발언대] 청소년 진주 시내버스를 말하다
- ▶▶ [독자토론평] 학원 일요일무제 실제로 가능해?
- ▶▶ [특집] 필통이 돌아 본 2019년 진주
- ▶▶ [특집/ 2019 SNS맛집검증 종합] 2019년 청소년 맛집지도
- ▶▶ [특집/ 취재수첩] 2019 필통 BEST기사 모음
- ▶▶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 ▶▶ [필통네모로직] 12월호 문제



진주 하얀메디컬 확장 개원

진주시 계동 옛 KT전화국 자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 하얀피부과
- 하얀성형외과
- 하얀소아청소년과
-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19년 한 해도 진주 아이쿱 생협은
필통과 함께 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리적 소비를 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달의 인물] 유튜브 이뚱ID 진주여고 1학년 남예은

좋아하는 것을 쫓다보니 유튜버가 됐어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할 거예요

Q. 자기소개해 주세요.

A. 현재 진주여고에 재학 중인 고1 남예은 이라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그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Q.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세요.

A. 제 채널은 원래는 스피드 페인팅이나 커미션 류의 그림만 올리려고 한 채널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그게 인기가 많아져서 현재는 만화 위주로 올리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브이로그도 올리고 있어요.

고 있어요. 나중에 돈을 모아서 클립스튜디오랑 사이틀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싶네요.

Q.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 유튜브 채널의 재미는?

A.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와서 서로 그림을 공유하고 즐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Q. 어떤 계기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나요?

A. 어릴 때 취미로 낙서를 해왔는데, 제대로 그린 건 중1때 부터예요. 저랑 절친한 친구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비결이 아닐까요. 놀러와 주세요. 구독 ~ 좋아요.^^

Q.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A. 친구들한테 먼저 말했는데 긍정적이었어요. 신기해하기도 했구요. 물론 부모님은 공부안하고 왜 유튜브를 하나며 부정적인 반응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1년 반 가까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공부를 병행한다는 조건 하에 허락을 받았고 현재는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세요.

Q. 학업과 유튜브를 병행하면 힘들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A. 솔직히 중학생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학교 성적도 괜찮았고요. 근데 고등학교로 올라오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중학교 때 만큼의 노력으로는 원하는 성적을 낼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안되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면서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죠.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열정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Q. 그림이나 유튜브 계열에 롤모델이 있나요?

A. 아주 아주 많죠. 그림 계열로 보면 유튜버 삼시보님이 있고 유튜버 계열로는 샌드박스 소속의 도티님이나 라온님이 제 롤모델입니다. 영상을 찍을 때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찍는다는 점과 주위에 전달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 부럽고 좋아요.

Q. 구체적인 진로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A. 확답을 드리기에 애매하지만 지금은 경성대 영상디자인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졸업을 하면 방송국 등에서 CF촬영이나 영상 편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 길을 신나고 재미있게 뛰어 가보려고요. 결과가 어떠하든 댄 만큼 제가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 믿습니다.

Q. 요즘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You Tube

많은데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A. 제가 아직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선배로서 말한다면 유튜브는 개인공간이 아니니까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는 누가 뭐라든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Q.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해 주세요.

A. 앞으로는 그림 영상뿐 아니라 브이로그나 일상, 노래영상을 많이 올릴 예정입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진주여고 브이로그 영상도 많이 올릴 거니까 중학교 후배님들 진주여고에도 많이 와주세요!(웃음)



<유튜브 채널 페이지의 메인 화면이다. 2019년 12월 15일 기준 구독자 약 3만 2000명을 기록중이다.>

Q.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A. '라온'이라는 유튜버분이 활동하시는 걸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써 즐기면서 유튜버를 한다는 것이 멋지고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오다 중2부터 도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림 유튜브를 하게 되었네요.

Q. 영상 편집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하시나요?

A. 컴퓨터를 쓸 때와 태블릿을 쓸 때 프로그램이 각각 다른데 태블릿을 쓸 땐 '키네마스터'라는 무료 어플을 이용중이고 컴퓨터로는 '어도비 프리미어'를 이용해 편집하

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엄청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저도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죠. 그 친구를 따라 그림을 그리다 보니 취미가 된 거 같아요. 그 친구가 원동력이었죠.

Q. 주로 어떤 종류의 그림을 그리나요?

A. 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학원을 다니다 보니 손 그림으로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Q. 그림은 학원에서 따로 배우는 건가요?

A. 네. 올해 9월부터 다니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독학으로 그려왔어요.

Q. 기억에 남는 작업물이 있나요?

A. 중간고사 시즌에 SF를 테마로 한 어워드가 있었는데 "우주에서 인간은 혼자인가?"라는 주제에 대해 네이버 웹툰 형식으로 긴 캔버스에 웹툰을 그렸는데 기억에 남습니다. 뽑히진 않았지만 그림실력을 쌓는데 동기 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Q. 구독자가 3만명이 넘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A. 진주에서는 더 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3만명, 많은 구독자는 아니죠^^(웃음) 그냥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이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



<직접 그린 그림>



<직접 촬영, 편집해서 업로드 하는 브이로그 영상>



<인터뷰가 끝나고 취재 기자의 모습을 즉석에서 그려주었다.>

[취재/ 원지현(학교밖) 기자]

3월

2019년 필통기자단 대표, 부대표를 만나다

저희 '필통'은 진주 청소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필통기자단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청소년들의 매체라 할 수 있는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을 만드는 핵심적인 기자활동을 합니다. 매년 방학때면 공식적인 학생기자모집을 진행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개별면접을 거쳐 10~15명 정도의 신입기자를 선발합니다. 신입기자들과 활동 중인기자들은 '기자학교' '기자단 수련회'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매년 25~30명의 학생기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5월

파티쉐가 되다. 경해여고 2학년 엄지희

나만의 마카롱가게를 열어 꿈빛 파티시엘, 현실이 되다



"고등학생 창업,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이었죠. 제 인생의 한 부분이고 제가 가는 길 위에 있는 일, 힘들 때도 많지만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걸어 갈 거예요. 제 최종 꿈은 호텔 파티시에라서 제과제빵 쪽으로 대학 진학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겁니다. 멈춰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빛나는 파티쉐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8월

나는 배우다. 진주제일여고 2학년 박소연

오늘도 배우고~ 연기와 함께하는 내일~ 내 삶의 일부가 될 배우의 길...



"영화 '짱개' '우상' '환청' '초미의 관심사', 드라마 '댄스퀸' '비밀의 숲' '발칙하게 고고' '응답하라 1988' 등에 출연했어요. '너가 어떻게 연기를 하나?', '넌 안 될 것 같다.' 주위의 부정적인 말들이 동기부여가 되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게 연기는 태어날 때부터 저와 이어져 있다고 믿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할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하답니다."



10월

토론대회 우승 대아고 2학년 김성윤, 박재성, 장현서

팀 클라우스로 전국토론대회 우승했어요



"토론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토론도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중의 기본이겠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 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등은 장래희망에 관련 없이 사람들과 맞대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피파 국대, 대아고등학교 2학년 윤형석

나는 피파온라인 국가대표 태극기를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려 놓겠습니다.



"진지하게 자신이 게임에 재능이 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재미로 하는 것과 자신의 일이 되는 것은 다르죠. 자신의 길이 되려면 공부와 게임에 그만큼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여러 대회들과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전 언제나 상상합니다. 세계 최고의 피파온라인 프로게이머가 되어서 한국 E-SPORTS 발전에 기여하고 있을 저를 말입니다."



6월

쌍둥이 플루티스트 박경진(경남예고2), 박경훈(진양고2)

진짜 하고 싶은 일은 그냥 해보아야 합니다 저희에게는 플루트예요!



"플루트는 평생 함께 하는 것, 그 존재 자체가 행복이겠죠"

"플루트로 제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괜히 안 되는 일 붙잡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걸 해봐요. 전공이 아니더라도 진짜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내가 몰랐던 진지한 나의 모습이나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9월

앨범 발매, 경남정보고 3학년 정상우

노래는 제가 살아가는 힘이죠 아티스트로 만날 그날을 기대해 주세요



"평일에는 학교를 마친 후 10시까지 연습, 주말엔 평균 7시간 이상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 연습, 연습... 그것이 지금 제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겠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앨범으로 저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아티스트로 만날 그날을 기대해 주세요."



11월

행복한 무용수를 꿈꾸는 삼현여고 2학년 배수아

스스로 무대를 즐기며 춤으로 시를 쓰는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보면 어느샌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루하루 일 분 일 초 간절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더 많이 배우고 무용단에 들어가는 것이 제 꿈이죠. 춤을 추고 무대에 선 스스로를 늘 상상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제자양성을 통해 제 모든 걸 전해 주고 싶기도 합니다."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이 선정한

2019년 청소년 10대 뉴스

1 프듀 1~4시즌 모두 순위 조작 결론



검찰이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모든 시즌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작PD 등 관련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

사6부(이영림 부장검사)는 2019년 12월 3일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보조PD 이모씨는 안 PD 등과 같은 혐의, 기획사 임직원 5명은 배임증거·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2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끝내 무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2009년과 2012년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경남교육청은 여러 차례 조례안을 다듬어 2019년 4월 26일 도

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3, 반대 6으로 부결됐다. 도의회 의장 역시 직권상정을 거부했다. 도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남아 있었지만 민주당의 포기로 끝내 조례는 자동 폐기되었다.

이 조례는 일부 종교단체, 지역 보수진영의 강력한 반발과 이를 감안한 도의회 상임위 부결로 이어지면서 3차 도전마저 무산됐다. 최근 10년 동안 세 번째 무산이다. 상대적으로 개혁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의회 다수 의석이었어서 기대를 모았지만 '벽'을 넘지 못했다.

3 패스트트랙 오른 18세 선거권
선거법 개정시 50만 청소년 '유권자'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법안으로 지정돼 최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토의에 부침)된 가운데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국회 정기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50만명의 고3 학생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된다.

4 게임 많이 하는 게 병이라고?
WHO,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게임 질병코드 역시 2019년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스위스에서 세계보건총회를 열고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한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게임 과몰입의 정도가 심할 경우 이를 정신병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인데, 여전히 의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와중에 이같은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게임업계의 공분을 샀다. 게임 이용 장애는 정신·행동·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으며 개인·가족사회 등의 분야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행동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진단될 수 있다.

5 고등학생도 무상교육 시대 열렸다
고교무상교육법 국회 통과

앞으로 초등·중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고교 무상교육법'이 2019년 10월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부터 당해 고2~3학년에 무상교육이 처음 실시된다. 이어 2021학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2020~2024년 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는 시·도 교육청이,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혜택의 규모는 내년 예산의 0.13%, 6700억으로 고등학교 한 학생당 연간 16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6 교육부 정시 확대 정책 발표, 40% 이상 정시로 뽑는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고자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위주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으로 뽑게 된다. 또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 등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9년 11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 전미선·설리·구하라·차인하... 너무 많은 별이 졌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14일 가수 설리의 비보가 전해졌다. 설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그리고 42일 뒤, 설리의 절친한 친구인 가수 구하라도 세상을 떠났다. 설리의 비보가 전해진 뒤 구하라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상태였지만 팬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밝은 근황을 전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했던 구하라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절친의 결로 떠났다. 설리와 구하라의 비극적인 소식은 무분별한 인터넷 악플 문화에 대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8 스쿨미투 가해자 43%, 숨방망이 처벌 받고 학생 가르쳐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사 중 43.3%가 학생을 다시 가르칠 수 있는 '숨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23일 공개한 교육부의 '2016~2019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578명) 중 250명이 강등·정직·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징계 중에서는 견책 75명, 감봉 62명, 불문경고 2명이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교원은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해 회개하도록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 불이익만 받는다. 정직·강등처럼 중징계지만 교직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었다. 파면·해임 처분으로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은 328명이었다.

9 기후위기 응답하라! 결석시위, 청소년들은 왜 등교를 거부했나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다. '기후위기'다. 흔히 쓰던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는 너무 한가한 단어가 되었다. 2019년 9월27일 광화문, 학교에 가야할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청소년 기후 행동' 주최로 열린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에 5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고 현재의 환경 위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기후변화행동에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유는 자신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아갈 당사자이자, 기후위기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테드 강연에서 자신이 100살까지 산다면 그때는 2103년이고, 2050년이 넘어도 기껏해야 인생의 절반을 살 뿐이라고 했다. 단지 몇십 년 후만 내다보는 기성세대와 2100년 이후까지 상상할 수 있는 세대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간성은 이처럼 다르다.

10 청소년 90%,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참여

올 한 해 이른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전 국민적 관심 속에 확산된 가운데, 이 같은 폭발적 동참은 10대 청소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10명 중 9명 이상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광복절

을 하루 앞둔 8월14일 교복업체 스마트학생복이 '청소년 역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약 94%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28명, 중학생 498명, 고등학교 578명 등 청소년 1104명이 참여했다.

진주 최초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인기

2020년 2월9일까지 운영, 대여료-입장료 2000원



지난 12월14일 진주실내체육관 남측광장 일원에 개장한 야외스케이트장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진주시는 지난 14일 초장동 진주실내체육관 남측광장 일원에 개장한 야외스케이트장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장한 야외스케이트장은 한번에 400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1천620㎡ 규모의 아이스링크는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으로 나뉘어 유아와 어린이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의무실과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요원도 상시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 야외스케이트장에 버스킹 공연 등을 준비 중이며 오는 12월25일 크리스마스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한편, 야외스케이트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용요금은 스케이트화와 헬멧 대여료에 입장료를 포함해 매 회당(2시간 기준) 2천원이다. 또한 안전을 위해 개인

스피드 스케이트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피겨 및 하키 스케이트화는 가능하고 대여료는 면제된다.



진주제일여고 선학학예제 열려...



선학학예제라 불리는 제일여고의 학교축제가 12월 5일 목요일에 열렸다. 선학학예제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먼저, 1학년 각반에서 준비하고 연습해 온 합창제가 있었고, 이후 학예제의 역사가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제일여고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갈매빛 중창단의 공연도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또한 김민교, 유튜버 소련여자 등 여러 유명인사들의 축하영상도 눈길을 끌었다. 1부의 마지막엔 예능제가 열렸는데 1학년 학생들이 마미손의 '소년점프'를 선생님들을 겨냥한 가사로 개조해 재밌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후 1학년과 2학년 각 팀의 댄스 무대가 이어졌는데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다. 점심식사 후 2부에서는 1970년대~ 2000년대 까지 시대별 음악에 맞춰 2학년 각반이 그 시절을 재현한듯 복고풍 넘치는 무대를 준비했다.

마지막인 3부에서는 '제일여고 복면가왕'이 열렸다. 토너먼트식으로 진행되었고, 투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이루어져 흥미를 더했다. 이후 선생님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학생과 교사 또는 교사 여러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나와 멋진 노래를 불렀다. 선학학예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제일여고 모델부(EDGE)의 패션쇼와 학생들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EDM타임이었다. 선학학예제는 진주제일여고 학생들이 모두 하나되어 공연을 준비하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며 또 다시 1년 후를 기약했다.



〈예능제-마미손의 소년점프〉



〈모델부 EDGE의 패션쇼〉



〈선생님 축하공연〉

[취재/ 민세진,강인원(진주제일여고)기자]

진명여중 미니 체육대회로 꿈과 끼 펼쳐요

자유학기 예술체육 스포츠리그
'미니 체육대회' 개최



진명여자중학교는 1학년 자유학기 예술체육 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리그전을 실시했다. 2학기 시작과 함께 실시한 미니 체육대회는 피구, 8자 줄넘기, 농구자유투, 팔씨름, 단체줄넘기, 줄넘기2단 뛰기 등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체육종목을 물론이고 공기놀이, 제기차기와 같은 전통놀이종목도 있어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볼링, 다트, 훌라후프, 꼬리잡기 같은 뉴 스포츠까지 두루 선정하여 체육활동에 흥미가 낮은 학생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다. 체육교과시간에 익힌 이론과 기능을 실제 경기에 접목하여 내실을 더하였고 학급 대항전은 학급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을 주었

다. 땀 흘리는 운동보다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걱정된다면, 다양한 종목으로 이루어진 이런 미니 체육대회는 학교 체육활성화를 꾀하는 대안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한 응원전도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미니 체육대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체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최은숙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고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활동이 많아질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0년에는 자유학년으로 운영되는 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기를 기대해본다.

진양고 국내 최초 공정무역 학교 선정

진양고등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한국공정무역마을추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인증 대학·학교로 선정되었다. 공정무역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 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를 말한다. 공정무역은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경남과기대와 진양고는 국내 최

초 공정무역 대학과 학교인데 공정무역이 생소한 경남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노고를 인정받고 선정되었다. 진양고는 학생들이 '세바진(세상을 바꾸는 진양인)'이라는 동아리에서 협동조합 매점을 운영하며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눔하고 있다.

진주기계공고 감전방지 콘센트 특허 출원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전자기계과에 재학 중인 손진욱(3년), 이경주(1년), 정성훈(1년) 학생이 제9기 IP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감전방지 콘센트'를 특허로 출원했다고 12월12일 밝혔다. IP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제안서 및 발표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을 교육한 후 전담 버리사를 매칭해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출원시킬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아이들을 위한 감전방지 콘센트'는 어린이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접점을 물리적으로 변경해 노출을 최소화시켰다.

진주고 독서 동아리 통영서 문학기행

진주고등학교 독서 동아리 학생들과 프로그램 참가 학생 30명이 지난 12월 7일~8일 통영에서 문학기행을 실시했다.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떠나는 북스테이 in 통영' 문학기행은 2019학년도 진주고등학교 독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했다. 통영 관련 시인 출신(유치환, 김춘수, 이영동)과 소설가(박경리)발자취를 찾아, 박경리기념관, 청마문학관, 김춘수 유품전시관에서 활동이 이뤄졌다. 문학기행은 사전자료를 제작하고, 조별로 미리 준비한 미션에 따라 활동하며, 해설사의 작가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는 것으로 이뤄졌다.

문산중 지역아동센터 초청 과학체험

진주 문산중학교는 지난 12월11일 문산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초청해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을 끄고 별을 켜다'는 문산중 과학동아리 M.S.G.와 천체동아리 WAYFARER이 함께 주관한 행사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과학실험과 천체관측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꿈을 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1부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솜사탕 만들기, 한천젤리 만들기 활동을 과학실에서 진행하였고, 2부는 천체관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 옥상에서 달과 별을 관측하는 활동으로 실시했다. 문산중은 문산 지역아동센터와 1학교 1복지시설 자매 결연을 맺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방과 후에 문산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집] 청소년들의 생각을 옮기다



2020 필통 청소년 설문조사

진주지역 고교생 1046명 참여, 생활·교육·사회 3개 분야 설문조사

2020 필통 설문조사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쯤에 있는지 의견을 들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진주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일상 생활분야, 교육관련 분야, 정치 사회 관련분야로 나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진주지역 고교생 1046명(남학생 510명, 여학생 536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기간은 지난 2019년 12월1일부터 15일까지 각 학교의 필통 학생자치단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설문

에 참여한 학교는 삼현여고, 진주여고, 제일여고, 경해여고, 선명여고, 진양고, 경남예고, 진주기공, 진주고, 대아고, 동명고, 진양고, 진주중앙고, 경상사대부고 총 14개교였습니다.

[일상생활분야]

1.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다 60%,
남학생이 더 행복지수 높다



사실 청소년들이 놓은 환경은 객관적으로 행복과는 좀 거리가 있다. 입시지옥, 경쟁, 학교와 학원을 돌고 도는 쳇바퀴 생활... 그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언제나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결과는 조금 의외다. 진주 청소년들은 멘탈이 썩편인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행복지수가 그리 낮진 않아 다행스런 결과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답은 7.6%에 불과했다. 남,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은 66%, 여학생은 56%로 남학생의 행복지수가 여학생보다 다소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연애평험이 있는가?

여학생이 연애평험이 더 높게 나타나 61%



청소년들의 연애. 아마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난 반달세'를 외칠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막을 이유가 무엇'로 생각이 나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연애의 기준이 꼭 나이가 되어야 하는 것은 조금은 억지스럽다. 어른들과 학교는 그저 학생들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설문결과 남학생은 54.7%, 여학생은 61%가 연애평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상과 다르다고 봐야 할까?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연애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집은 화목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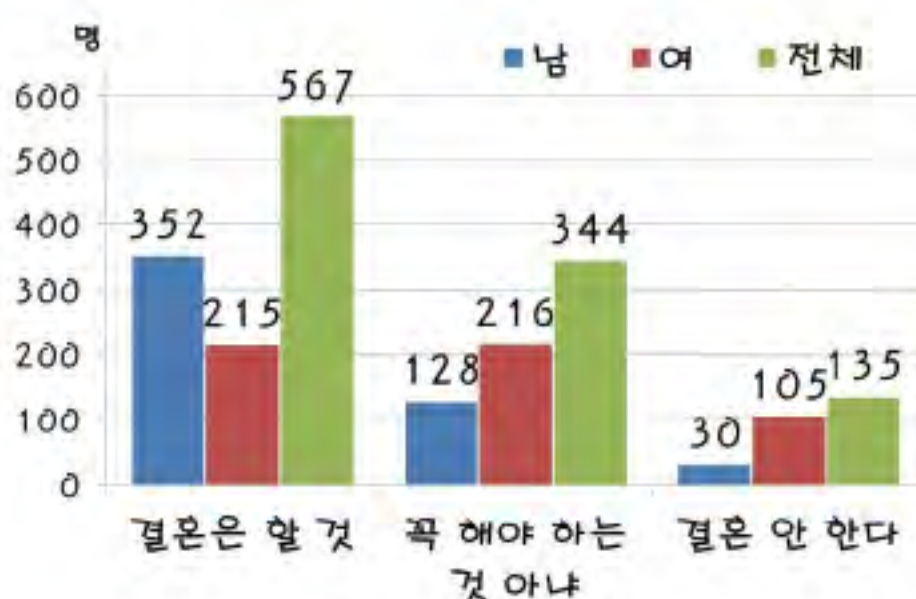
화목하다 73.8% 압도적



청소년들이 말하는 '화목'이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살짝 든다. '화목하지 않다'라는 답변은 전체의 단 3.9%에 불과했다. 어려운 경제상황, 이혼율의 증가, 맞벌이가 기본이 되어 버린 가정, 가족이 모여 저녁을 함께 먹기도 힘든 것이 요즘의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 느끼는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힘든 가정형편과 부모님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남,여 학생은 남학생 75.2%, 여학생 72.4%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4. 나는 결혼 할 것인가?

결혼 안할 수도 있다 45.8%,
남녀 차이 여학생 60%



청소년들의 결혼관은 시대를 반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혼은 할 것'이라고 답한 학생은 54.2%에 불과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 한다'가 무려 45.8%다. 즉 결혼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결혼을 당연시하는 전통적인 사고와 청소년들의 인식의 차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결혼도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 요즘 세상을 청소년들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봐야한다.

결혼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각차도 크다. '결혼은 한다'라는 답변은 남학생은 69%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여학생은 40%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즉, 여학생은 '결혼을 안한다' 또는 '안할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60%에 달했다. 결국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기존 여성들의 삶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현실을 직접 보며 확인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5. 고민을 나눌 친구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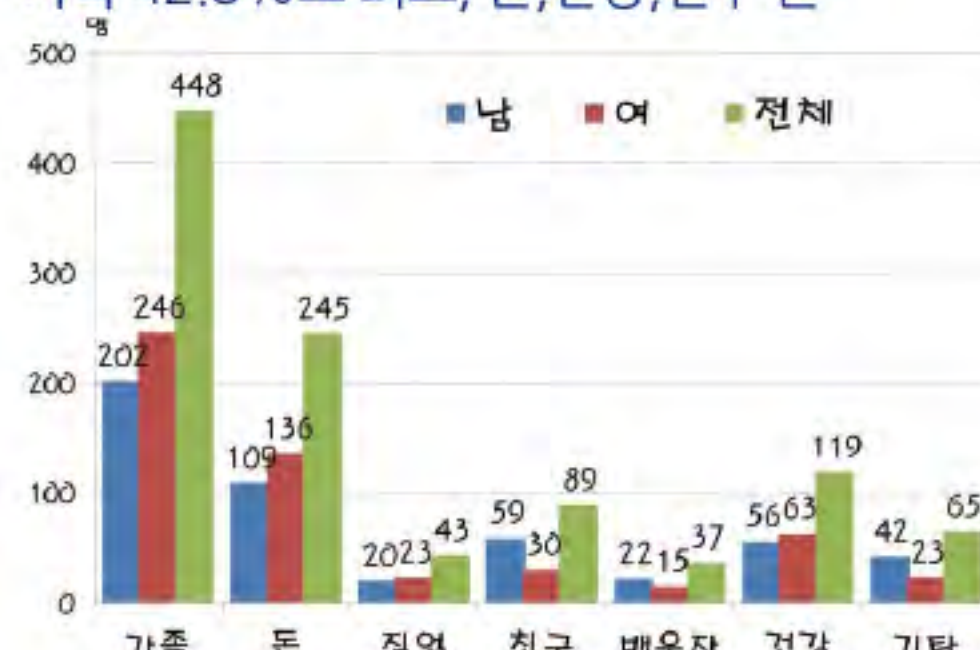
88.1% 절친이 있다.



참 다행스런 결과다. 청소년들의 성장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친구'가 아닐까? 성장통을 겪고 수많은 고민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존재가 친구이기 때문이다. 무려 88.1%가 '고민을 나눌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 남,여학생 역시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6.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족 42.8%로 최고, 돈,건강,친구 순



청소년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었다. 무려 42.8%다. 다음으로 꼽은 것은 돈, 건강, 친구 순이었다. 눈여겨 볼만 한 것은 직업이나 배우자를 선택한 경우가 4%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가족이 중요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한편으로는 오늘날 자신의 가정에 만족해서인지, 아니면 행복함이 부족해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인지 그 결과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특이하게도 남, 여학생의 설문결과가 가족-돈-건강-친구 순으로 거의 비슷했다.

7. 가장 큰 스트레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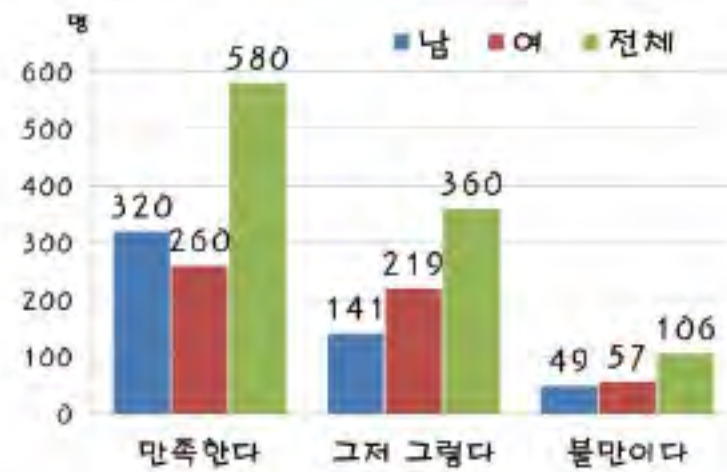
학업, 성적 압도적 55.8% 다음은 진로문제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는지 모른다. 청소년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생각할 것도 없이 '학업과 성적'이다. 과연 당연한 정답일까? 55.8%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업과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왜 꿈 많은 청소년기에 일상적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현실은 정상인걸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남,여 학생들의 결과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남학생 54.7%, 여학생 56.9%로 학업, 성적 스트레스를 꼽았고 진로문제와 친구관계가 그 뒤를 이었다.

[교육관련 분야]

1. 학교생활에 만족?
만족한다 55.4%로 낮은 수준,
여학생 불만족 더 높다.



객관적으로 보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그다지 행복해 보일 것 같지는 않다. 이른 아침 등교, 계속되는 수업, 방과후 보충, 야간자율학습까지 답답한 학교생활을 좋아라 할 학생들은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남학생이 50.9%로 여학생 40.8%보다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함께한 설문 중 '행복한가' '우리집은 화목한가'라는 다른 만족도 질문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2. 자퇴를 고민한 적 있나?
49.8%가 자퇴 고민 했다. 여학생
이 훨씬 높아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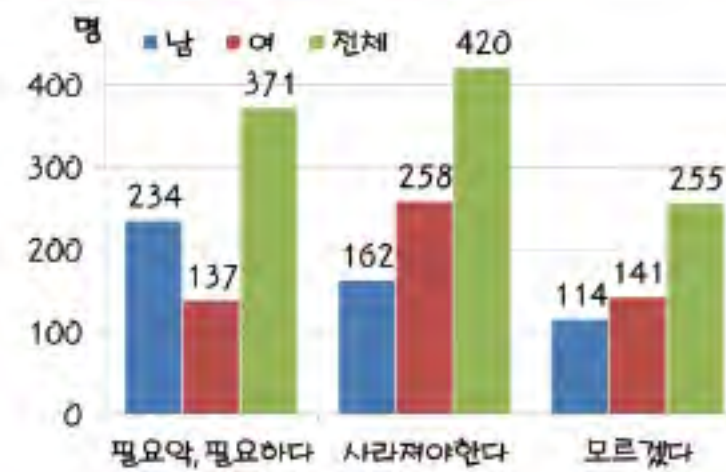
학교밖 청소년이 35만명을 넘긴다고 한다. 이렇듯 청소년은 이제 학교안에만 존재한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는 49.8% 학생들이 자퇴에 대한 고민의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높은 결과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해서 보면 그 결과가 조금은 충격적이다. 여학생이 59.5%로 남학생의 39.6% 보다 훨씬 더 자퇴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결과였다. 여학교에서 좀 더 세심한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3. 현 입시제도에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13.3% 교육제도 불신
심각수준



입시제도에 대해 어쩌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이 그 어느 탁월한 교육전문가의 의견보다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있다. 현행 입시제도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학생은 13.3%에 불과했다. 명백히 '불만이다'에 표를 던진 학생이 37.9%에 이른다. 입시제도에 대한 불신은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만족도는 남학생의 18.2%보다 현저하게 낮은 8.5% 수준에 그쳤다.

4. 교육적 체벌은 필요한가?
체벌 반대가 5% 더 높아,
남녀학생 의견 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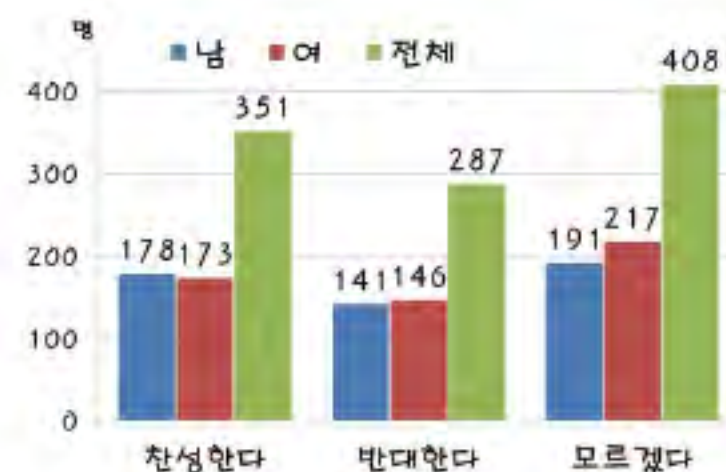


체벌문제는 학교에서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체벌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그 어떤 체벌도 인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이번조사에서도 역시 의견은 갈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40.1% : 35.5%의 결과로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보다 높았다. 찬반이 비슷했던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나마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결과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생각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학생은 41% : 25%로 체벌에 대한 반대의견이 훨씬 높았는데 반해 남학생의 경우는 오히려 25.5% : 48.1%로 여학생의 25.5% : 48.1%의 결과와 확연히 다르게 교육적 체벌을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더 우세했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인권의식이 낮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폭력에 둔감한 남학생들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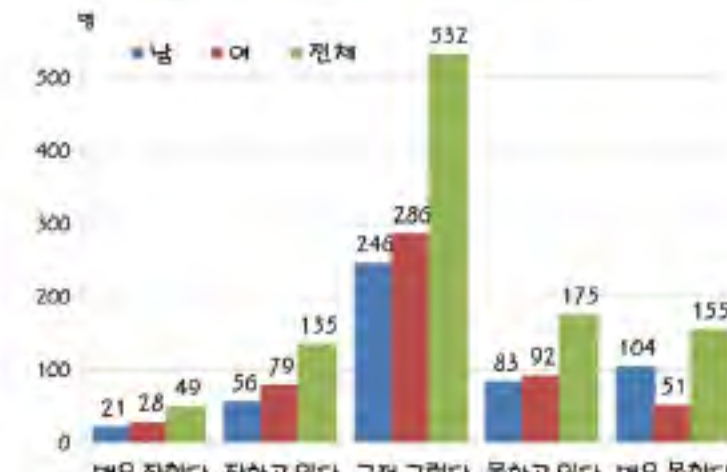
5. 정부의 정시확대 정책?
반대보다 찬성의견 더 높아..
그러나 39%는 모르겠다 혼란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 그런지 정부의 정시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감지되는 설문결과다. 찬성과 반대 의견보다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9%의 적지않은 학생들은 정시확대 찬반을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는 답을 내놨다. 그래도 찬성이 33.6%, 반대가 27.4%로 정시확대에는 긍정적인 학생들이 좀 더 많았다. 남,여학생들의 의견도 비슷했다.

[정치사회 관련 분야]

1.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하나?
그저그렇다 50.9%로 가장 높아,
부정평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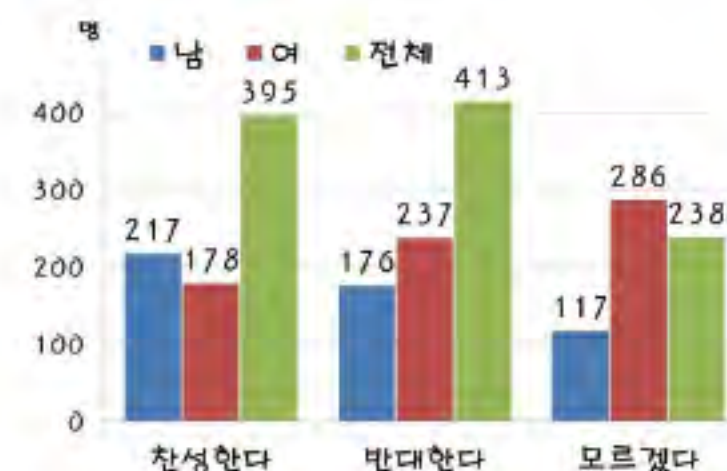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사실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이 덜하다. 어른들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그다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미래의 유권자이고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고 그것을 잘 잡아 주는 것 역시 교육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청소년들은 어떤 점수를 주고 있을까? '매우 잘한다' '잘한다' 긍정평가는 17.8%였다. 가장 많은 50.9%는 '그저 그렇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못한다' '매우 못한다'의 부정평가가 31.5%를 기록해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였던 도덕성과 공정성 논란이 대통령과 정부의 평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거권 연령인하?
반대 39.5%, 찬성 37.8%
팽팽히 맞서..



선거권 연령인하문제는 최근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는 사안이다. 시간이 갈수록 선거권 연령인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의외로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반대와 찬성이 39.5%, 37.8%로 팽팽히 맞섰다. 남,여학생의 생각 차이도 있었다. 남학생이 42.5%로 여학생 33.2%에 비해 찬성 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선거권 연령인하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취직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납세의 의무도 갖게 된다. 국민에게 각종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3. 교육감 선거 학생들의 참여는?
교육감선거는 다르다? 선거권을
달라 59.1% 압도적 찬성



선거권연령인하 문제와 교육감선거 참여는 비슷한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학생들의 답은 완전히 달랐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빨리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찬성의견이 59.1%의 지지를 받았다. 반대의견은 18.9%에 불과했다. 남,여학생들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앞선 18세 선거권과는 다르게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감선거에는 학생들이 그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우리사회는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다 62.7%
심각한 수준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교과서속에서만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모습속에서 그리고 가정과 자신이 사는 마을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누구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바란다. 학생들은 그렇게 배우고 또 교육받는다. 어쩌면 청소년들은 누구보다 자신이 배우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무려 62.7%의 학생들이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단, 11%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필통 발언대]

청소년 진주 시내버스를 말하다

진주시내버스, 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버스기사님의 불친절함은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운전중 욕설은 물론이고 정류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정차하시는 것도 기본. 친구 버스비가 없을 경우 “학생 2명이요”라는 말을 해야 하지만 매번 들은 짜증에 말을 하기가 망설여진다. 주행 중 기사님이 난폭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혹여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 때문에 이동하지 못한다. 기사님 자리 앞에는 ‘친절, 안전의 시내버스’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문구가 있다.

▶ 신기원(중양고 1학년)



진주시내버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배차간격이다. 예를 들어 시내에서를 평거동으로 가려할 때 10여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 3~4대씩 버스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다. 만약 이 버스가 10분 동안 1대씩 나눠서 운행되었다면 2.5분의 배차간격으로 운행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3~4대가 동시에 다니게 되니 앞 버스는 승객으로 가득차고 뒷 버스는 아무도 태우지 못한 채 그 버스의 뒷 공무만 쫓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비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체제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 최성도(대이고 1학년)



학교 등,하교시간 버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버스가 자주 지나가는 곳은 문제가 없지만, 버스가 자주 오지 않는 곳에서는 버스를 놓치거나 정류장을 그냥 지나가버리면 학생들은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주영(삼현여고 1학년)



만원버스가 된 상황에서 버스의 과속, 급정거 등으로 옆 사람과 부딪히는 일은 학생들이라면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주황색 일 때 무리하게 지나가는 경우는 물론 빨간불에도 차량들의 통행이 없다고 지나가 일수입니다. 신호위반은 곧 사고의 위험입니다. 제일 안전한 버스가 시내버스여야 될 텐데 말입니다. ▶ 김경원(중양고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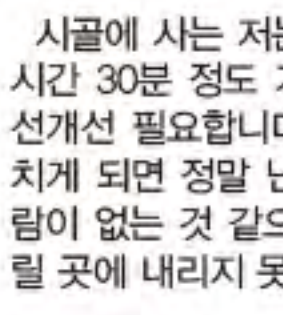


진주시내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상한 버스정류장 안내기(BIT)입니다. 3분 후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은 6분 후, 도착 예정 리스트에 있지도 않은 버스가 도착하는 경우를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 김태능(진주고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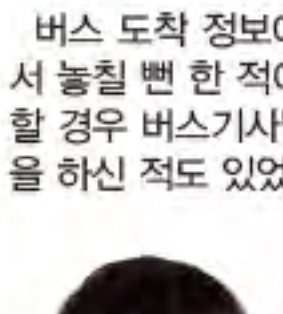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이다. 저희 집 근처 버스정류장은 다행히 버스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으로 버스가 한 번에 4~6대 정도가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 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정은영(경해고 2학년)



시골에 사는 저는 배차시간이 1시간정도여서 버스를 놓치면 한 시간 3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시내버스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개선 필요합니다. 배차시간 때문에 기사님들이 정류장을 지나치게 되면 정말 난처합니다. 가끔 종점에 다와 갈 때 버스 내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기사님 마음대로 버스 노선을 바꿔 원래 내릴 곳에 내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오후연(제일여고 2학년)



버스 도착 정보에 버스가 뜨지도 않았는데 정류장에 버스가 와서 놓칠 뻔 한 적이 많습니다. 또 버스를 타서 체크카드 결제할 경우 버스기사님께서 종종 교통카드 좀 가지고 다니라고 타박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 조서영(진양고 1학년)



제일 큰 문제는 버스 기사님들의 난폭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님들의 난폭운전은 승객의 안전과 연관이 큼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은 너무 빈번합니다. 물론 모든 기사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고 승객의 안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기사님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만이라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민준(진주고 1학년)



진주시내버스, 내가 느꼈던 불편함들...



버스를 타는 것 뿐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안 맞아 지각을 한 적이 많다. 또한 버스정류장에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버스를 볼 때면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누구를 위한 버스인지 화가 나기도 했다. 승객을 더 배려 해주면 좋겠다. ▶ 조수민(진주여고 1학년)

퇴근시간 시내버스는 너무 불편하다. 퇴근시간과 학생들의 학교 시간이 겹쳐 버스 안은 터질 듯이 가득 찬다. 버스를 서서 타는 것은 기본이고 옆 사람 앞사람과 부딪히고 내릴 때는 사람들 사이를 쟁쟁대며 빠져나와야 한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급하게 커브라도 돌면 지옥이 따로 없다. ▶ 박진우(사대부고 1학년)

우선 버스에 올라타기도 전에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또 분명히 버스가 멈출 때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도 멈추고 일어나면 오히려 욕 먹기 십상이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 이태승(진주고 1학년)

학생용 요금은 현금 900원이므로 천원 짜리 지폐를 내면 100원을 거슬러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100원을 거슬러 받기 위해 서서 기다리면, 기사분께서는 얼른 자리에 앉으라며 호통을 칩니다. 다혈질인 기사분도 많으셔서 난폭운전을 하실 땐 ‘내 돈 내고 버스 타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서럽습니다. 또한 제 정거장에 내려주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행동이 조금 느린 노약자분들께 화를 내기도 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분들도 본 적이 많습니다.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말자(경해고 2학년)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및 임산부가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 이동해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배설화(진주여고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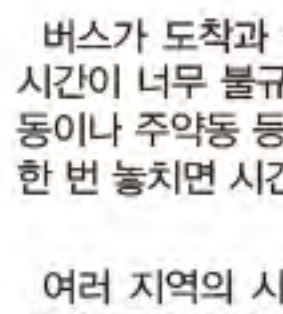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면 이전 거스름돈을 받을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도 ‘학생이요!’라는 말을 무시하는 기사님들도 많고 되려 목소리가 작았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는 기사분도 있었습니다. 승하차시에는 언제나 마음을 좋게 됩니다. 난폭운전, 욕설과 폭언, 서비스를 받는 승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스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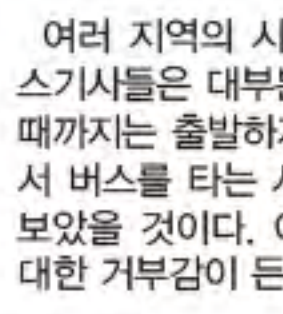
▶ 김소민(삼현여고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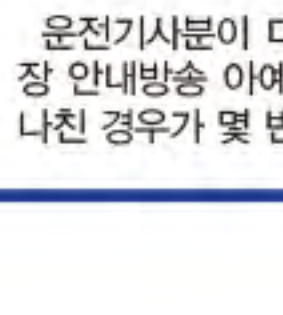
친절하신 버스기사님 덕분에 기분이 좋았던 적도 많았다. 승객들에게 밝게 인사해주시고 버스비가 모자란 친구를 그냥 태워주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안전하고 편안한 시내버스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주는 버스 기사님들이 되시면 좋겠다. ▶ 신나현(진주여고 1학년)



버스가 도착과 출발을 알려주는 앱이 있는데 도착시간과 출발시간이 너무 불규칙하고 오차가 많아 믿을 수가 없다. 또 총무공동이나 주약동 등은 노선도 부족한데 다니는 횟수도 적어 버스를 한 번 놓치면 시간낭비가 너무 크다. ▶ 김소연(진양고 1학년)



여러 지역의 시내버스를 타봤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진주 버스기사들은 대부분 불친절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승객들이 다 탈 때까지는 출발하지 않고, 급정거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진주에서 버스를 타는 사람이라면 난폭운전을 하는 기사님을 허다하게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버스기사의 불친절로 인해 진주 버스에 대한 거부감이 든다. ▶ 박지인(제일여고 2학년)



운전기사분이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무섭다. 정류장 안내방송 아예 나오지 않거나 잘 들리지가 않아서 무심코 지나친 경우가 몇 번 있었다. ▶ 박지인(제일여고 2학년)



시내버스문제 청소년들의 목소리 반영해야...

등교 시간이면 시내버스에는 한 버스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승차해 많은 불편을 겪는다. 정차 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물려있는 노선에서는 특히 문제가 커지는데, 차량에 너무 많은 인원이 탑승한 나머지 하차 벨을 누르거나 안전 손잡이를 잡기도 버거운 상황이 생기곤 한다. 당연히 버스 이용에는 많은 불편이 생기며 안전의 문제도 생긴다. 꼭 해결 해야 할 문제다.



들쭉날쭉한 버스의 정류장 도착 시간으로 인해 버스를 놓치는 학생들이 자주 생긴다. 심지어 지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출결 점수와 직결 되는 사항이라 학생들에겐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보니 불만이 높다. 이 문제 또한 진주 시의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한다. 부모님의 자가용이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일부의 경우가 아니고 서야 졸든 싫든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엔 버스 요금이 학생들에게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1000원도 안 하는 요금이 뭐가 부담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입이 없다. 어른들의 기준에서는 별 부담 없어 보이는 요금일지언정 일주일에 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교통비는 용돈에 의지하는 학생들에게는 생각보다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학생들은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꼭 학교 건물 내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등 학교 역시 교육 받을 권리의 연장선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등하교시 교통비 무효는 아니더라도 대폭적인 요금할인이 필요한 이유다.

진주 시의 시내버스의 개편을 위한 여러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지만, 어른 못지 않게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진주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중 하나인 시내버스 문제는 어른은 물론 학생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주장 되어지고 또 반영되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도 시내버스 개편 문제에 많은 목소리를 낼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원지현(학교밖)기자]

지난 11월27일 오후 7시 진주시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진주시 시내버스 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원지현기자가 청소년 패널로 참가해 발언한 내용이다.

시내버스 정보 관리 시스템의 잦은 고장과 모든 정류장이 아닌 일부에만 설치된 점이 불편하다.

▶ 김민준(경해고 1학년)

[필통편집국]

[연말특집/ 맏칸년맏반] 진주고등학교 2학년 2반 편

진주고 버라이어티 끝판 반

주목! 우리 이렇게

역변했어요~^^

명실상부한 문과 대표 반, 4번의 각종 진주고 교내 운동 대회에서 3번이나 준우승(콩)을 차지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매일 같이 쉬는 시간마다 레슬링 경기가 열리는 매우 버라이어티한 반이다. 다들 방학 잘 보내고 개학하고 보자!



담임 석영주 선생님

올해 진주고등학교에 처음 오신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5cm만 더 컸으면 모델을 했을 거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환철한 키와 좋은 비율을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 수업시간 때 마다 다양한 일본 노래와 영화를 소개해 주며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덕분에 2학년들은 '코이스루 포춘쿠키' 만 나오면 자동 반사로 춤이 나올 정도다. 언제나 말쑥한 우리 반을 넓은 마음으로 잘 챙겨주시는 선생님입니다.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동현	긴생모리에 멍뚱이상	dh.1_1.오 인스타 시작해줘요
강예담	여따 씨도 소용없는 거 다 압니다^^7	눈꺼 지송합니다.
곽병규	똥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 (영필이?)	jangbeomjunebogoshipda
권태근	방귀 잘 끼는 여자	김다은♥
김기훈	귀여운 여자	키 좀 더 크고 싶다.
김원동	친구 같고 비율 좋고 가르마가 잘 어울리는 사람	어깨 넓어지고 싶다.
김종진	...	안녕하세요 진주고 김종진입니다.
박지현	...	안녕하세요 진주고 박지현입니다.
송현수	키 작고 귀엽고 이쁜사람	@nsuoahy
신준우	너♥	감자튀김 사
유재경	같이 게임 할 수 있는 여자	지민아 키 크자
이동규	지냥 2122	지민아 호떡 사줘
이훈희	예쁜 사람	업씨
정영빈	귀엽고 웃는 게 예쁜 사람	놀아줄 사람
정지민	예다미 잘생겼다~~	아스날 좋아하는 사람
정현민	박보영처럼 예쁜 단발머리	김원동 피파 3대 1로 발림
조현민	...	안녕하세요 진주고 조현민입니다.
조종수	이상형보단 이하형 짝갈	하고 싶은 말보단 타고 싶은 말 짝갈
진민수	금수저^^	이잉~

우리 이렇게 역변했어요~^^



강동현:장난기가 굉장히 많고 웃음이 많은 친구로 축구를 가장 좋아한다. 원래는 꼬꼬미였으나 요즘엔 키가 많이 컸다. 친구들 사이에선 현동이나 동자라고 불리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



강예담:반에서 원동이 담당 일진이다. 학교에선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선 스스로 정상이라고? 민트초코를 좋아하면 동료애를 느끼고, 축구에서는 예담다이라고도 불린다.



곽병규:필통의 대장으로 알려진 2반의 살림꾼. 선한 첫 인상과는 달리 별명이 고블린일 정도로 시비가 일상이 된 친구로 이성적인 면모를 보인다. 장범준을 짝사랑하고 있는 순정남이다.



권태근:2반의 권력자이며 얼굴 담당. 귀여운 말투와 개그로 친구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잘하는 운동이 보이지 않는다. 무서워 보이지만 건드려보면 별거 아닌 매력~



김기훈:사진과 다른 악성 곱슬의 소유자. 종종 머리가 모자 모양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착하고 배려심이 많고, 남을 잘 도와준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어딘가 뻔뻔한 면이 있다.



김원동:팔씨름 골짜기. 어깨가 좁고, 너무 말라 유니세프(또는 칼미)라 불린다. 하지만 운동을 잘하는데, 축구가 최고다. 어리바리한 행동으로 놀림 받고 고을불가의 저주받은 성대가 특징.



송현수:웃음 많고 보조개가 매력인 귀여운 친구다. 키 크고 덩치도 커서 북극곰처럼 편안한 느낌. 외모와 달리 운동신경이 있어 웬만한 운동은 다 잘한다. 그리고 자칭 진주고 피파통이다.



신준우:진주고에서 예쁜 얼굴로 1등! 최근 먹는 것을 즐기는데 최애 음식이 감자다. 그래서 롯데리아 감자튀김을 매우 좋아한다. 착하고 순둥 운동은 다 잘한다. 매일 잘 빠진다.(함정이다!)



유재경:별명이 여러 가지. 특히 이름 때문에 재경이라 불린다. 노래, 게임을 좋아하며 축구는 잘 못하지만 농구는 잘한다. 많이 먹지만 살이 안찌고 키로 가는 부러워하는 체질의 소유자.



이동규:재치 있는 말솜씨와 높은 친화력으로 2반의 분위기 메이커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여자 친구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랑꾼답게 현재 여자 친구와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중이다.



이훈희:우리 반 돼지 형제 중 막내뻘이다. 너무 귀여운 얼굴과 달리 운동을 해서 어깨가 정말 넓은 근육뻘이다. 축구에선 안드레 고메스라는 별명. 세상에서 장난치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



정영빈:180을 뛰어넘는 키와 다부진 근육질 몸매의 소유자로 공부, 운동 못하는 게 없는 반장이다. 하지만 허당끼가 다분하고 철부지 같은 모습도 보인다. 문과 대표 수문자로 2반 대장이다.



정지민:항상 자기애가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다. 귀엽고 순진하게 생겼지만 장난기 많고 아재개그를 남발한다. 그래도 친구들과 사이가 좋는데 특히 태근이라는 친구에게 사랑 받는다.



정현민:친화력이 좋아 친구 관계를 원활하게 정리한다. 잘생겼고 모든 분야에서 다재다능하며, 심지어 게임(배그)까지 잘하지만, 수학과 이시국(일본어 30점인 애국자)을 잘 못하는 욕에 티.



조종수:대표 조속남. 하는 짓, 취향, 옷 입는 게(동생복을 입고 학교에 온다.) 까지 모두 30대를 뛰어넘는다. 음식을 마시는 속도는 인간계 이상. 역사에 빠삭하고 유럽 쪽은 모르는 게 없다.



진민수:중학교 때 운동만 했으면 살이 안 찼을거라고 주장한다. 통통하지만 나쁜 지 않은 축구 실력이다. 늘 맨유를 디스하는 맨유팬. 공부 안하는데 성적은 괜찮게 나오는 이상한 친구다.

신청바랍니다 카톡ID : feeltong1318 이메일 : feeltong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요약 설명을 보내주세요.

[취재/ 곽병규(진주고2)기자]

[틴틴이슈] 범죄연예인 출연금지법 논란

범죄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통기자 타임라인

PRESS



찬성한다. 연예인들이 죄를 저지른 후 다시 TV에 나온다는 것은 차별이다. 일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나오면 직장에도 취직 못하고 무시 받는 등의 커다란 대가가 따른다. 연예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죄를 저지르면 그에 대한 부정적인 대가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출연 금지가 없으면 연예인들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한재덕(진주고1)기자

PRESS



반대한다. 애초에 형을 선고받고, 처벌이 끝난 사람에게 또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한다. 형이 끝났으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법은 사회에 나가서도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예인이 방송을 도구로 삼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는 법이라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일단 전과자라면 출연을 막고 본다는 점에서 너무 막무가내라고 생각한다./ 원지현(학교밖)기자

PRESS



병역 비리, 탈세, 도박, 마약 등 연예인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자 일부에선 이런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방송 출연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사람들이 도덕적인 잣대로 사실상 출연을 막는 것은 가능해도 법의 힘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한 사람의 신상도 금방 알 수 있는 요즘 사회의 자정 능력은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나는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출연을 법으로 금지해서 안 된다고 본다./ 박병규(진주고2)기자

PRESS



아무리 자숙하고 반성했다 해도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순간부터 범죄자는 평생 죄책감과 반성하는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몇몇 전과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했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회화화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범죄 피해자를 회화화하는 것과 다르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방송에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여기지만, 피해자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일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활동하는 모습은 피해자에게 고통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청자에게 범죄에 대한 '안일함'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법을 찬성한다./ 전규원(경해고2)기자

PRESS



전과 연예인이 방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연예인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에 따라 모두가 하는 일이 다르듯이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단지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인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직업일 뿐이다. 범죄 전력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역시 차별 아닐까? 살인을 저지르거나 악독한 강도인 전과자도 형을 살고 나오면 나라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시대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활동을 금지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허윤지(삼현여고1)기자

PRESS



나는 전과 연예인 방송출연 금지에 대해 반대한다.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죄값을 다 치른 사람에게 이런 불이익까지 주면 이중처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법을 만들지 않아도 대중에게 의해 자체적으로 걸러질 수도 있는데 꼭 이런 법안을 발의해야 했을까? 전과가 수두룩한 국회의원들도 뚝뚝하게 고개 들고 월급 받아가며 활동하는데 왜 연예인에게만 법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는 법적제재가 없어도 방송사, 시청자들이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전과 연예인들의 출연을 막는 법안은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이 아닌가 싶다./ 정병훈(진양고2)기자

PRESS



반대한다. 연예인들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고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영원히 금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기징역을 처벌 받은 수감자도 모범수로 죄를 반성하며 참회의 수감생활을 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범죄를 하고 죄값을 치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이수근, 김용만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은 방송을 잘하고 있고 사람들도 나쁘게 보지 않으니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강우영(진주고1)기자

PRESS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에 찬성한다. 연예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살인이나 사기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방송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으로 출연금지를 정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캐스팅하는 방송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과가 있으면 취직이 어려운 일반인처럼 방송을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계를 아예 끊어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같다./ 전시은(진양고2)기자

PRESS



찬성한다. 평소에도 몇몇의 예능 방송에서 연예인의 범죄 사실을 방송소재로 삼고 이를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는 것을 많이 봤다. 나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계속 똑같은 사태가 반복하기에 이를 강력하게 제재 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전과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개 연예인과 일반인 모두 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연예인에 게만 제재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같은 직업이지만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대중에게 얼굴을 비춰야 하는 공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죄의 경중에 따라 출연 금지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거나 완전히 출연 금지를 하는 등 선별적으로 제재를 했으면 한다./ 강인원(제일여고1)기자

PRESS



찬성합니다. 전과가 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방송에 다시 복귀한다면 지은 죄가 너무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고액의 출연료까지 주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방송에 출연시켜야 할까요? 더군다나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나 성폭행 피해자들이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다시 복귀하여 방송에 나온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물론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가희(중양고2)기자

PRESS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만한 행동을 한 아주 악질적인 연예인들이 있는 반면 정말 사소한 실수나 사고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다. 중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은 당연히 방송에 나오면 안 된다. 어떠한 처벌을 받고 자숙 기간을 거친다 하더라도 나오면 안 된다고 본다. 사회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면 일명 '빨간 줄' 이 그여 큰 불이익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연예인들에게 무조건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지만 정말로 미미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저지른 범죄일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과 차이를 두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민수(경남고2)기자

PRESS



금지법을 찬성한다. 연예인은 공인이다. 공인은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이나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방송에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을 선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반성을 이유로 출연 금지를 반대한다면 반성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지원(진양고1)기자

범죄 연예인 출연 금지법 원칙과 무원칙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및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과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사실이 알려진 뒤 뒤늦게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기여자에 대한 대체복무 적용 여부로 한동안 논쟁이 벌어진데 이어 '물'의 연예인들의 자숙과 복귀 반대 등 연예계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법안에는 마약 관련 및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은 영원히 방송에서 퇴출돼야 맞는 걸까?

방송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진 직후 연예계 안팎에서는 물론 누리꾼들 사이에서 당장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법안 옹호론자들은 "유명 연예인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게 맞다" "몇 년 자숙하고 슬그머니 복귀하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등의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법이 통과되면) 이미 복귀해 활발하게 활동중인 이수근, 박 태환도 이제 못 보는 거냐?" "도박은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한 번의 잘못에 대한 페널티는 신중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예인들 컴백 때마다 찬반논란,
'제재기간 들쭉날쭉' 무원칙 때문
특정 직업군 근로자유 침해, 한번의 실수로
영원히 퇴출?

덜덜덜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만으로 실제 사실과 다른 여러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마약과 대마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지훈, 박유천, 최승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경영, 상습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전력을 가진 이수근, 김용만, 신정환, 박 태환, 토니 안 슈 등이 당장 방송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쏟아졌다. 하지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것은 맞지만 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특정 직업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들과 달리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이 사실상 주된 직업활동이나 마찬가지다. 일정 제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단 한번의 전과 기록만으로 영원히 연예계를 떠나야한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물의를 빚은 연예인들이 컴백할 때마다 찬반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복귀 기준이나 자숙기간 등 잣대의 무원칙 때문이다. 범죄전력을 가진 연예인들의 방송출연 금지가 꼭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공감할 법안이어야 맞다.

[필통편집국]

[특집/ 맏칸년맏반-신청] 경상사대부고 1학년3반 편

미친놈과 정상인의 사이! Welcome to 1학년 3반!



3반 담임 손병근선생님
우리 학교 최고의 미남이자 몸
짱 선생님이다. 4차원을 넘어
선 3반을 무사히 업고 가시는
최고 능력 갑인 선생님. 근육이
엄청나신데 특히 팔 근육이 보
통 사람의 허벅지 이상이라 눈
길을 사로잡는다. 성년 근육과는 달리 아내분에게
만은 섬세하고 달달하신 사랑꾼이다.♥



3반 부담임 임순철선생님
부고의 아이언맨! 열정 가득!
에너지 가득! 파워 가득! 부고
인의 건강과 에너지를 책임지
는 골쟁 가득한 선생님. 부담임
을 맡으셔서 사랑과 응원을 아
끼지 않으신다. 큰 키와 엄청난
근육을 소유하셨으나 항상 밝은 모습으로 해피바
이러스를 전파하신다. 할 수 있다, Just Do It!

여기! 넘치는 매력을 확인하시라



성경진:반장이자 대장
님이다. 삼현 독수리 전
사 출신. 가족 대대로
조폭 집안. 등에 용 문
신이 있다는 전설이 있
다. 남학생들과 체력 대
결과 스파링에도 전혀
꿀리지 않아 남자 아니
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다. 암구르기 연속 100
번을 가볍게 성공하고
최근 옆돌기를 시전한
다.



황다인:도비의 주인이
며 3반의 키와 비주얼
을 담당하는 황달심이
다. 언제나 도비의 위에
서 논다. 불현 듯 화가
나면 책상을 치고 과상
한 소리를 낸다. 반장과
이상하게 놀고 있을 때
는 반 친구들 누구도 이
해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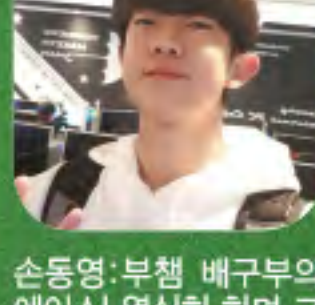
강병현:우리 반 대표 몸
짱. 사실 힘은 없다. 복
근으로 뺨뺨을 할 수 있
다. 그만큼 자기관리도
잘한다. 꽤나 스윗가이
다. 이준호와 99% 쌍둥
이며 돌아서 노래방을
가면 고음 대결을 한다.
단, 이준호가 더 잘하
는 것은 비밀.



안효천:점심시간이면
항상 슬럼프를 찍는
다. 실상 동주보다 실
력은... 맘이 매우 많은
데 신기하게도 무함미
다. 언제나 스웨이넘치
며 국어책을 읽을 때도
SWAG!! 3반 대표 힘필
이다. 공부를 하는 것에
비해 성격이 매우 잘 나
온다.



신동주:황다인의 도비
다. 우리 반의 확성기를
담당한다. 가끔씩 예러
가 나서 시끄러워지면
민주의 욕 한방으로 해
결된다. 또한 황다인에
게 잡혀 산다. 1학기부
터 현재, 죽을 때까지 다
이여트를 하고 있다. 본
인 피셜로 다른 학교에
따까리가 많다고 한다.



손동영:부침 배구부의
에이스! 열심히 하며 그
만큼 잘한다. 혼잣말도
잘한다. 민주가 시험기
간에 콩나물 국밥을 소
개시켜줬는데 이로 인
해 콩나물 국밥 찐러버
가 돼 버렸다. 최근 준
호와 뜨개질하는 게 취
미이며 학교에서 세수
하고 스킨로션을 바른
다.



윤은진:체능 상을 휩쓰
는 미대 오빠. 단, 체육
배고... 3반의 피아니스트
로서 피아노 치는 모
습에 안 반한 여자가 많
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
며 낙서가 아닌 예술이
다. 정작 자신의 비밀은
없지만 다른 친구들의
비밀을 다 꿰뚫고 있다.



박경민:인간의 조상이
공룡이라고 홀로 주장
한다. 경민이는 모든 사
람들에게 잘해주고 좋
아해주며 친절함이 넘
친다. 수업시간 질문과
대답을 가장 열심히 하
며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한다. 우리 반에서
가장 사랑스럽다♥ 경
민이 경고!!!



임태희:태희는 뽕살도
귀엽다. 동생도 귀엽지
만 정작 태희는 안 귀여
운 게 팩트다. 최근 팔
굽혀펴기 1개를 성공했
다. 한 때 반장과 청소
시간에 체력단련을 했
지만 반장에게 졌다. 살
도 빠지지 않았다.



김연경:배구 선수 아니
다. 반장과 더불어 평균
키를 깎아 먹는 중이다.
비록 키는 작지만 에너
지는 엄청나다. 뒤에서
반을 위해 행여주는 일
이 많다. 우리 반의 휴
대폰 담당이며 워드 끝
판하고 자세하게 잘 청
겨준다.



남근호:명실상부 우리
반 '1등' 이다. 그만큼
공부를 정말정말 열
심히 한다. 지금도 공부
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과목을 잘하며 물어보
면 친절하게 가르쳐주
서 거의 3반의 과외 교
사다. 쉬는 시간에 주로
경민이와 오목을 한다.



강민주:도비에게 시비
거는 게 취미. 시비 걸
다가 결국 역공을 당하
는 경우가 대다수다. 아
마스빈을 정말 사랑한
다. 화가 나면 학교가
얼어붙을 정도로 무섭
다. 친구들에게 밥을 사
주어도 하며 씹숨이가
매우 큰 친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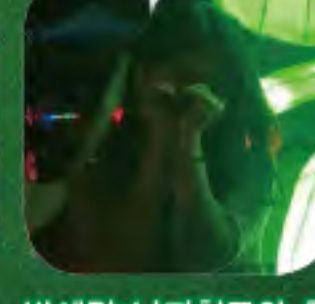
강태웅:곰이다. 진짜 곰
은 아니다. 학교에서 중
간 중간 기타를 치며 우
리 반의 귀를 호강시켜
준다. 1반 담임 선생
님에게도 인정하셨다. 밴
드부에서도 활약 중이
다.



정재웅:학기 초에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녀서
보청기나 소리를 중
중 들었다. 4차원적인
면이 많다. 알고 보면
재웅이는 엄청난 시비
붓이다. 수업시간에 만
화책을 종종 읽어 뽕기
는 경우가 많다. 배구를
열심히 하며 꽤나 잘하
는 편이다.



류택기:개택기야!!!! 3
반의 공용어로 욕이 나
을 때 순화해서 쓰는 말
이다. 택기의 누나분께
서는 엄청나게 미인이
시다. (유전자 물병) 보
통의 경우와 다르게 시
험 당일 선물과 편지를
주고 받을 정도로 누나
와 사이가 매우 좋다.



박예림:남자친구와 통
련 중이다. 몇 일 전
500일을 넘겼음에도
사랑이 넘친다. 남자친
구와 학교에 가끔 데리
러 오는데 모두의 부러
움을 산다. 둘 다 사랑
꾼인 것 같다. 남자친구
와 매우 잘 어울리며 웃
을 때 소리가 호랑하다.



정유진:너무 착해 애들
이 많이 놀린다. 여름방
학 때 놀림을 이겨보고
자 영상도 했다는 설이
있으며 2학기 때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으나 실패
했다. 공부, 운동, 뭐든
열심히 하고 화가 나면
본인 피셜로는 무섭다
는데 정작 친구들은 전
혀... 유진아, 3반 탈출하
지 마♥



황유라:글씨가 레이저
프린트한 수준으로 예
쁘다. 교과서 줄긋기가
정갈하며 정신이 해롱
해지는 벽돌 같은 것들
을 그려주고 인크팬봇
이다. 빌릴 것이 많다.
가끔씩 머리를 풀고 오
면서 청순미를 발산한
다.



김진환:3반의 유일한
전학생이다. 수업 시간
에 잠을 많이 잔다. 여
기 번쩍 저기 번쩍, 주
로 8교시에 사라져서
홍길동 같다. 100일이
넘은 여자친구가 있는
데 엄청난 미모를 자랑
한다. 이 커피 매우 잘
어울린다.



이준혁:3반의 대표
stonekid. 이 정도로
4차원적인 친구는 어디
서도 보지 못한다. 쉬는
시간에 연을 날리려 가
는 것이 취미며 혼자 여
러가지로 제조하고 영
동한 행동을 많이 한다.
가끔씩 머리를 특이하
게 자르고는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다.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나의 이상형	하고 싶은 말
강민주	아마스빈 좋아하는 사람	아마스빈 먹고 싶다
강병현	너	@iwasonlyou
강태웅	나랑 잘 맞고 날 좋아해주는 사람	애들아 신세 좀 질게
김연경	키 크고 연락 빠르고 강아지상	@dusrud_00
남근호	착하고 키 165cm정도	2학년 돼서도 잘 살자 ㅋ
류택기	웃 잘 입는 여자	나랑 같이 붓듀오 하자
박경민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	서로 좋아하는 노래 공유해요 kengmin5486
박예림	중저음, 키 170이상	뭐든지 내가 더 잘하게 사랑해♥
배재현	...	수고했어 올해도
성경진	염심민 빼고	염심민 보시면 때려주세요.
손동영	너	콩나물 국밥 먹자.
신동주	잘 웃는 여자	착하게 살자.
안효천	165~171인데 살짝 통통하고 예뻐야 됴	...
윤우진	국밥충	국밥을 왜 먹냐?
이준혁	잘 맞는 사람	...
임태희	...	@taehyi5525
정유진	손 예쁘고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성경진 예쁘다.
정재웅	예쁜 여자	달이 참 예쁘네요.
황다인	아빠	...
황유라	공유	김나연 생일선물 뭐 사줄까
김진환	재밌는 사람	집 가고 싶다

[신청/ 김연경의 사대부고 1학년3반친구들]

[특집] 필통이 돌아 본 2019년 진주

2019년 진주에는 무슨일이 있었나요?

1. 삶 자체가 무너졌다,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올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 한 아파트 A동에서 22명의 사상자(5명 사망·17명 부상)를 낸 안인득(42)의 방화·살인은 주민들의 삶을 일순간에 뒤집었다.

중경상자와 목격자 등 간접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줄곧 불안과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들 중 70여명은 진주 범죄피해지원센터나 진주시보건소를 통해 상담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던 이들의 발길은 사건 발생 6개월째인 지난 10월부터 거의 끊겼다. 그렇지만 이들 대부분은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피해자 중 일부는 영구적 성대 마비, 신경 장애, 원인 불명의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오랜 기간 일상을 보내며 가족들과 추억을 가꿔 나가던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새 터전을 찾아 떠났다. A동 전체 80가구 중 25%에 해당하는 20가구가 이사했다.

최근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했다.

2. 세계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발견, 보존결정



올해 진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발견이었다. 세계 최대인 1만여개의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은 우리나라 지질학계는 물론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발견 장소가 한창 조성 중인 정촌 뿌리산업단지다 보니 원형 보존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결국 문화재청은 지난 8월 22일 진주 뿌리산업단지 화석산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회의에서 문화재 보존 방법을 논의해 '현지보존 결정'을 했다.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화석산지는 익룡 집단 서식지 흔적, 희귀성 있는 빠른 속도 육식공룡 보행렬 등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이 그동안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밀집지역 갈오르고 공원의 5500여개보다 훨씬 많은 1만여개에 발견돼 새로운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로 떠올랐다.

다. 이에 따라 이를 현지에 보존·전시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지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뿌리산업단은 진주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2016년 9월부터 산단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공룡발자국 화석이 다량 발견되자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고생물학자 모임 등이 현지 보존을 꾸준히 요구했다.

3. 진주시내버스 50여일 파업은 무엇을 남겼나



올해 진주시를 돌아보면 시내버스 파업사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없다. 1월 새해가 시작되기 얼마 지나지 않은 1월 21일 새벽부터 진주의 4개 버스회사 중 하나인 삼성교통이 파업에 들어갔다. 시내버스 91대가 32개 노선에 하루 670회 운행을 해오다 멈추었다. 나머지 3개 업체가 55개 노선을 운행하고, 진주시는 삼성교통 노선에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했다. 하루 아침에 진주시는 관광버스가 시

내버스를 대신해 시민들을 맞았다. 하루 77만원의 월세가 길바닥에 뿌려지고 돈벌이 하는 관광버스의 불편하기만 한 짝퉁 시내버스에 시달려야 했다.

삼성교통(노조)은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계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적자에 임금체불까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모두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진주시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주시는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원가 지원체제로 업체가 원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구조"라 주장하며 맞서며 무려 47일간 파업이 진행되었다.

47일을 이어 간 파업은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삼성교통 노조가 현업으로 복귀한다고 밝히며 끝이 났다. 시내버스 파업은 한 버스회사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진주시가 지난 20여년 방치한 시내버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요구다.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재정지원금 관련 조례 제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 시스템 마련,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공공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노선개편, 버스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등의 산적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 둔 채 2020년을 낮아야 한다.

7. KBS진주방송국 통폐합 결정



중계시설로 사실상 지역방송국 폐지계획의 수순으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 10월 이사회를 열어 지역국 7곳을 총국과 통폐합하기로 결의했다. 곧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사업자 변경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듯 KBS가 내년 2월, 진주방송국을 포함한 7개 지역국 핵심기능을 지역총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둬 나오고 있다. 지역방송국의 TV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하게 되면 해당지역 KBS는 지역에서 언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방송국 기능조정, TV 주파수 반납 등에 대해 정부기관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중·고교 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 지원



진주시가 학부모 자녀 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시는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4월에 추경예산 19억원을 확보했다.

지급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이며, 진주시역 중·고교생 뿐만 아니라 지역외 재학중인 신입생과 전입생도 포함됐다. 단, 타 법령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공제한 금액으로 지원되었으며 신청된 서류는 시에서 검토를 거쳐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을 통해 지급되었다.

진주시시는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지난 6월까지 각 학교 및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6200여명의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지난 2011년부터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60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남해군, 합천군 5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돼 2019년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진주시에는 특수학교를 포함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1개교 47000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이는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5. 모든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시내 공공장소로 확대



올해 진주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정촌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발견이었다. 세계 최대인 1만여개의 공룡·익룡 발자국 화석은 우리나라 지질학계는 물론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발견 장소가 한창 조성 중인 정촌 뿌리산업단지다 보니 원형 보존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결국 문화재청은 지난 8월 22일 진주 뿌리산업단지 화석산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평가회의에서 문화재 보존 방법을 논의해 '현지보존 결정'을 했다. 진주 정촌 뿌리산업단지 화석산지는 익룡 집단 서식지 흔적, 희귀성 있는 빠른 속도 육식공룡 보행렬 등이 발견돼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곳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이 그동안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밀집지역 갈오르고 공원의 5500여개보다 훨씬 많은 1만여개에 발견돼 새로운 세계 최대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로 떠올랐다.

다. 이에 따라 이를 현지에 보존·전시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지 보존하기로 결정했다고 문화재청은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와 지자체가 제출한 의견을 거쳐 세부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뿌리산업단은 진주시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동 출자해 2016년 9월부터 산단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공룡발자국 화석이 다량 발견되자 진주지역 시민단체와 고생물학자 모임 등이 현지 보존을 꾸준히 요구했다.

6. 진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되다



우리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로 선정됐다. 유네스코가 올해 10월 3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창의도시 가입 도시로 진주시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에 도전한 지 3년 만이다. 천년고도이자 유서 깊은 문

화·예술도시로서 국제 공인을 받은 셈이다. 향후 유네스코 명칭과 로고를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공신력이 향상되고 홍보도 쉬워진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란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창의성과 문화산업 기반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하는 도시를 뜻한다.

유네스코는 창의도시 가입 도시 66곳을 발표했는데 한국에서는 진주시와 강원 원주시(문학)가 새로 가입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84개국 246개 도시가 가입됐다. 국내에는 경

남 진주시와 통영시, 서울(디자인), 경기 이천시(공예), 부산(영화) 등 10개 도시가 지정돼 있다.

진주시는 앞으로 지역 전통문화와 가치를 해외에 알리면서 창의도시들과 다양한 협업을 진행한다. 국립 경상대, 경남과학기술대, 진주교대 등 지역대학들과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진주는 오랜 전통의 덧배기춤, 진주검무 등이 유명하다. 소목장(小木匠)과 장도장(粧刀匠), 두석장(豆錫匠)도 지역 전통공예다.

진주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맡은 공적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주방송국이 창원총국에 통·폐합되면 서부경남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라며 통합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KBS 지역국 기능축소 계획은 2019년 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면서 시작된 것인데 경영적자 책임을 흑자를 거두고 있는 지역국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연말특집/맏칸년맏반] 진주제일여고 2학년 2반 편

공부도, 체육도, 댄스도 1등! 제일의 만능 반, 2학년 2반입니다~!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에서 모든 상이란 상은 다 휩쓸고 다닌다는 2학년 2반. 공부도 1등! 축제도 1등! 반 리그전도 1등! 노래, 수업태도, 체육, 외모까지 빠지는 것 하나 없다는 게 우리반의 유일한 단점!! (아니, 못하는 게 뭐니?)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모여 뭐든지 잘 해낸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비롯, 모든 학교생활에 활기가 흘러넘치는 2반이다. 2반 친구들아! 얼마 남지 않은 2학년, 행복하게 잘 마무리 하자~



담임 김대기 선생님

제일여고 국어 교사로, 제일여고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김대기'가 나올 정도로 유명하시다. 별명은 '마기'. 1학년 때 외모에 반해 입덕 했다가 시험문제를 재미있게 내셔서 탈덕한 친구가 여럿이다. 공부 외엔 우리 반에 대해 무심하신 편인데 정말 무심하다. 하지만 이것도 매력이라면 매력. 귀여운 딸이 있으신데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귀엽다. 선생님을 쏙 빼닮았다.^^!



나의 크리스마스 계획 & 하고 싶은 말

이름	크리스마스 계획	하고 싶은 말
강수빈	비밀	♥SALGISILTA♥
강은진	배민정 몰래 배민정 집에서 놀기!	3학년도 크레이지 사가랑♥♥
김서진	남자친구랑 데이트 하기, 엄마 생파♥	우린 방학인데ㄱ
김민진	놀러 가기	크리스마스다♥♥
김려경	부산 가서 겨울 바다 보고 카페 가서 이야기하기!	@krgyeong_61
김정민	남극에서 물구나무 도전하기	카페레제
민세진	계획 없이 보낼 계획	하비바
박소연	가족여행□술크ㅠㅠ	박토니 사랑해□내새끼
박주희	나 홀로 집에	@jh_jh_31
배민정	크리스마스 파티하기	이강인 만나보고 싶다!!
손지유	넷플릭스로 영화보기	@ths_w_41
오선주	넷플릭스로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먹기!	넷플릭스 같이 살 사람~?
오은혜	바다보기	살아있다^.^
윤은채	남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silver_02
이시화	오래된 친구들과의 홈파티	ㅈㅈㅎㅎㅇㅇㅇㅇ
이아진	유희진이란 영화 라스트 크리스마스 보기	남친 만들어줘 @leeazen
정세하	넷플릭스 정주행!	명진 갈 사람□(□□□)□
정유나	혼자 집에서 놀아 줄 친구 찾기	@youna_1210로 키 크는 법 줌..
정윤영	즐거운 하루^ㅇ^	이힘들)♡< 담에 밀양 놀러갈게 ㅠㅠ 잘 지내!!
정정이	찬양제, 연극 연습과 가족 저녁식사	올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
조민희	가족끼리 외식하기!	다들 고3 화이팅)
최소원	공부	@bbbingusu 빙수 보고가세요:3
홍예림	교회갔다 민서랑 성대한 만찬 즐기기♥	안녕 ㅇㅇㅇㅇㅇㅇ

우리반 친구들의 매력속으로!



배민정:우리 반 꼬꼬마 반장! 아마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을 거다. 가끔 덩령대긴 하지만 자기 할 일은 아물막지게 한다. 그리고 신이 나면 자신의 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요즘 축구선수 이강인한테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결혼까지 할 거란다.



조민희:책임감 가득한 우리반 부반장. 평소엔 킬링한 매력을 보이다가 종종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충신출왕. 축제 때 큰 활약을 했다. 공부만큼 노는 것도 잘하고 게임도 잘한다. 특히 pc방에서 컴퓨터 게임하는 걸 좋아해서 친구랑 자주 간다. 빈전 매력의 매력부자다.



강수빈:서울에 집이 있는 미래가 밝은 친구.^^ 본인은 공부를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천재다. 핑크색 채플리로 모든 핑크를 수집한다. (이 시국에 그렇지만 키트를 사랑한다.) 사물함에 장구 벽장이다. 또한 케이팝 척척박사로, 5년째 SM어류키즈 데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김려경:수빈이랑 탈케이팝을 약속한 친구다. 하지만 탈케이팝을 하려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많다. 특히 귀여운 눈웃음을 가진 남자들을 좋아한다. 또 품품푸린을 아주 좋아한다. 에어팟케이도 품품푸린인데 정말 귀엽다. 그리고 유튜브 규린을 좋아한다.



김민진:대표 까불이. 정말 시끄럽고 활기차다. 잠을 많이 자서 수업시간엔 조용하지만 쉬는 시간엔 항상 크게 웃고 있거나 조잘조잘 댄다. 반에서는 상인, '상큼한 민진'이라 불린다. 정말 상큼한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그리고 지각대장으로 선생님께 자주 혼나지만 참 착한 친구다.



민세진:제일여고 필통기자며 우리 반 유일한 쌍둥이다. 엉뚱함으로 웃음을 전파한다. 귀여운 친구들을 보면 정신이 가출된다. 그 중 민진이, 세하, 은진이, 채경이를 끔찍히 귀여워한다. 귀엽다고 화를 낼 정도로 표현을 주체 못한다. 귀여운 하리보 곰돌이를 잘 그리는데 요즘은....



손지유:자칭 애지(애기 지유)라고 부른다. 얼굴이 정말 동그라서 호행맨 같다. 그렇지만 정작 자기는 동그란지 모른다. 스스로 거의 160cm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152cm. 맨날 엉뚱한 짓을 해서 친구들로 구박을 받지만 알고 보면 청암반 천재.



정유나:2년 차 자취생으로 통곡, 외박 등 모든 것이 자유로운 매력쟁이. 미니언을 좋아하고 하는 짓도 4차원적인 키 작은 꼬마다. 공부 외엔 뒤통 열심히 하고 특히 야자를 빼고 코노, 영화관, 전화, 게임이 일상. 놀자고 하면 1초의 고민도 없이 달려갔지만 요즘은 공부중이라 외롭다.



정윤영:요기 반씩 저기 반씩 쉬는 시간 중반에 있을 때보다 학생회일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많다. 그럼에도 수업 시간에는 늘 말동말동한 정말 신기한 친구이다. 최근 영화 다시 보기에 빠져 1일 1영화룰 실천 중이라고 한다.



최소원:우리 반 유일한 전사로 예쁜 삼 고양이 빙수를 키운다. 항상 친구들에게 하트 뽕뽕 눈빛으로 빙수를 보여준다. 매운 음식을 잘 먹고 특히 마라탕을 좋아한다. 제일여고의 첫 마라탕 전수자다. 또한 누구나 입이 떡 벌어질만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제주꾼이다.



이아진:고양이를 참 좋아한다. 특히 최소원 고양이인 빙수를 사랑한다. 별명은 '아진이노'. 자신과 똑같은 착한 언니가 있다. 쌍둥이 같다. 수업시간에 절대 안 잔다고 다짐하지만 나중 보면 항상 자고 있다. 가끔씩 학교에 마카롱을 들고 와서 친구들과 나눠먹는 참 착한 친구다.



김서진:오랫동안 사귀고 있는 남자 친구가 있다. 너무 귀엽게 사귀다. 먹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다양한 음식들의 조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는 말마다 유쾌해서 반 친구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놀라움을 자아낸다. 요즘은 유튜브 수빙수에게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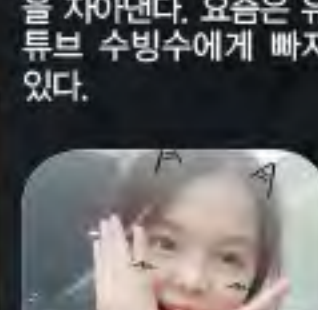
오은혜:우리 반 대표 장꾸러기다. 깨워도 잘 못 일어날 때도 많고 잠 자느라 급식도 밥 먹듯이 거르는 친구. 그래도 먹을 건 다 먹고 다닌다. 요즘은 힐링에 꽃혀서 바람 쐬러 다니며 감성 팔이 중이다. 하이에 꽃하면 잘 헤어 나오지 못한다.



윤은채:먹는 것을 사랑하는 공주님이다.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사서 추가해 넣어먹는다. 같이 매운 음식 먹을 친구를 구하는 중이다.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밥풀이다. 인스타 구경오라고 광고중이다.□(□)□ @silver_02



박소연:박토니 누나이자 배우님이다. 몸매 좋고 매력이 넘친다. 연기, 노래, 영어 등 다방면으로 뛰어난 만능캐.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착해서 항상 놀리고 싶은 친구. 잘 웃어서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항상 노력하는 모습이 미래의 대 성공을 예감하게 하는 친구다.



오선주:배우 김태리를 얼마만큼 존경하는 팬. 겉으로 보기에 소심하지만 친해지면 장성규 정도의 텐션을 자랑하며 허당이가 넘친다. 먹는 것을 좋아해 누구나 인정할 대식가. 모든 면에서 열정적이고 특히 공부할 때는 진지하다. 수업시간에 졸음을 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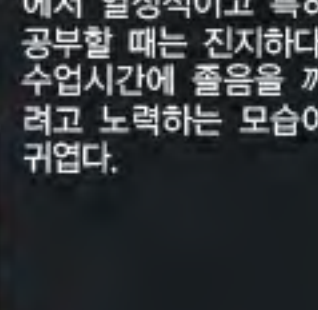
강은진:학교에서 잠을 안자는 참 신기한 친구다.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해서 모르는 영상이 없다. 쉬는 시간엔 본인의 노트북 LG그램으로 타자연습게임하기 바쁜 친구. 금산 토박이로 금산,맛집을,줄줄이 꿰고 있다.그 유명한 미자 수확원 수강생으로 문과지만 수학을 잘한다.



정정이: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한 친구다. 그렇지만, 매일 조용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금반전! '웃길 때는 진심 웃는다.' 좋아하는 건 독서, 디저트, 흡입. 최근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중이며 먹고 싶은 음식을 하나씩 메모에 기록 중이다. 다이어트 성공 가즈아~!



홍예림:우리 반 대표 최정신이다. 급식 잔반을,절대로 단 한 톨도 남김! 적이 없다. 아난척 하지만 사실 슈퍼주니어 동해의 열렬한 팬이다. 미대를 꿈꾸고 있고 최근 하루 공부 6시간에 도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취재/민세진(제일여고2)기자]

학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불편한 진실

학생들에 대한 불신이 똥 놀 자유를 침해하다니...

이런 변이 있나? 누구나 화장실을 들어 설 때 급하거나 속이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평화가 찾아온다. 아뵘! 그런데 화장지가 없다. 식상한 유머나 코미디의 한 장면 같지만 실제로 당신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당황스럽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상식이다. 공중화장실은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왜 학교는 다른 것일까? 날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왜 화장지는 찾을 수 없을까?

진주고, 대아고, 명신고, 삼현여고, 진주여고, 경진고, 경해여고 등의 학교에는 화장지통이 개별 화장실 안에 비치되어 있지만 막상 화장지를 넣어 놓지는 않는다.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향해 달리더라도 화장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안타깝게도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화장실과 다소 거리가 먼 교실 안 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다. 이럴 경우도 여러 번이 하나의 휴지를 사용하니 턱없이 화장지가 부족하기 일쑤라고 한다. M고의 한 학생은 '거의 모든 학생이 화장지를 들고 다닐 정도예요. 화장지도 학교에서 개인 필수품이 되어 버렸어요.' 라고 불만스럽게 말했다.

배변은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배변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왜 화장실 안에 화장지가 사라져 버린 것일까?

학교에서 말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화장지 사용이다.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면 학생들이 주의의식 없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막 쓴다는 것이다. 화장실 용도 이외로 쓰기도 하고 몰래 가져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화장지 사용에 대한 불신이 화장실에 화장지를 둘 수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결정일까? 분명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동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공동체 생활이고 예의고 배려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하고 토론해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야지 학생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휴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옳은 일도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교육은 단순히 교실에서 수업만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고 사귀고 웃고 즐기며 고민하는 학교생활의 모든 것이 교육일 것이다. 화장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낭비는 공공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으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는 학교, 그것이 정상

[취재/ 한재덕(진주고1)기자]



일리는 없다. 학생들의 불편은 분명한 사실이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학생들 화장실 화장지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생들은 화장실 화장지 비치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학교측은 학생들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화장실에 화장지가 늘 있어도 아무 문제없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화장지를 걸어보길 바란다.

양심 없는 급식 도둑, 이건 아니잖아요!

도식은 절도라는 학생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는 많이 다르다. 고등학교는 야간자율학습 일명 '야자'라는 것이 존재한다. 물론 야자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야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녁밥을 해결하기 위해 석식을 신청하게 된다.

석식은 선택적으로 신청을 해서 먹을 수 있다. 대신 석식은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끼당 약 4,500원의 급식비를 낸다. 석식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은 당연히 석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들의 석식 때면 급식소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바로 일부 학생들의 무분별한 무전취식 문제다. 무전취식은 법률 제14908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9항(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의거한 엄연한 범죄 행위다. 흔히들 '도식'이라고

들 하는데 맛있는 급식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급식 절도 사건을 말한다.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몰래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이들의 상습적인 절도 아닌 절도로 인해 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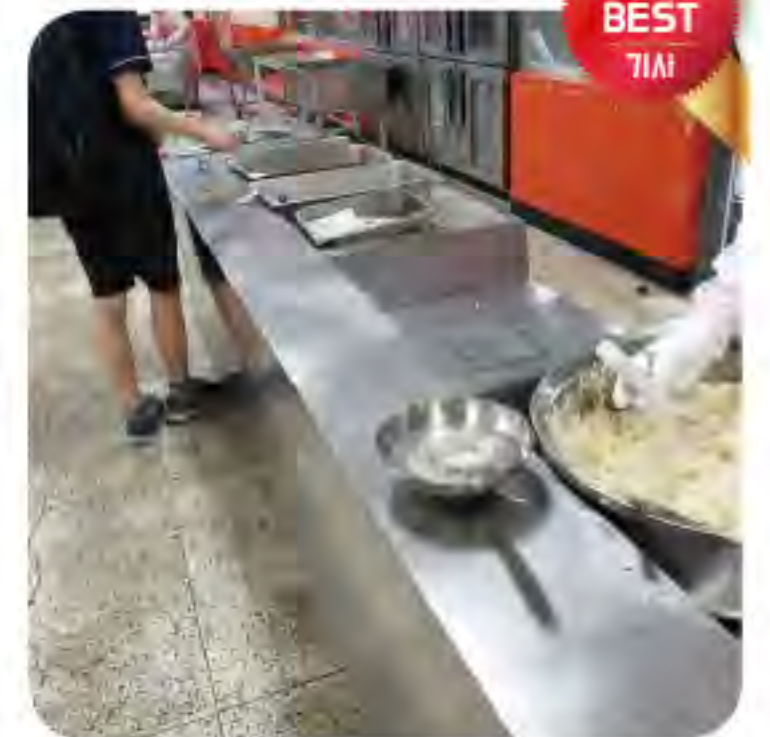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이러한 무전취식을 막기 위해 영양사 선생님과 급식도우미가 석식 신청 여부를 철저히 검사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기계나 처벌, 감시로 도식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 도식 때문에 돈을 내고 급식을 신청한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하고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면서도 넘길 수 있는 장난 같은 일이 아니다.

이대로 내버려둬야 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학교나 급식소에선 도식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에 의해 빈번히 일어

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기본적으로 도식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쉽게 도식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두고 학생들만을 탓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영양사 선생님이나 급식도우미보다 선도부장 선생님 혹은 선도부가 석식 신청 여부를 검사를 하고 단속 하면 무전취식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도식을 하는 학생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도식은 명백한 절도다. 엄연한 범죄다. '어차피 남을 거'라는 생각은 접어두고 '다른 친구들이나 때문에 밥을 못 먹으면 어쩌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들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도식은 절도라는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가장 급선



무다. 또한 학교에서도 도식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학생들이 도식을 쉽게 행동에 옮기지 못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세상은 학교에서부터 바로잡혀야 한다.

[취재/ 배재현(사대부고1)기자]

누구를 위한 교내 대회인가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참가 할 수 없는 교내대회

가정의 달 5월, 중간고사가 끝난 학교에선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가 열린다. 한 숨 돌리듯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각종 수행평가와 행사가 계속되어 오히려 시험 기간 보다 더 바빠지는 달이다. 그리고 대부분 학생들에게 5월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교내대회'가 열리는 달'이기도 하다.

교내 대회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끼와 능력을 뽐낼 기회를 마련해 주고 흔히 자기주도 성장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강의식의 수동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학문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학교 교육의 장이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수시의 비중이 늘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학생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른바 '관리'의 개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학생부를 위해 학교와 학생들은 열과 성을 다해 5월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자연히

학생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수상 실적과 스펙을 위해 교내 대회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이런 교내 대회가 야간 자율 학습 시간과 같이 전교생이 참여하기 힘든 시간에 열리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우선 당장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대회가 야간 자율 학습시간에 열리면 학원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에 제한을 받는 학생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학교에선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궁색한 답변과 함께 결국 학교는 그 시간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반쪽짜리 대회를 열게 된다.

더구나 교내 대회가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 열리게 될 경우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석식 신청을 하지 않아 저녁을 제대로 먹지 못한 채로 대회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도식하거나 근처 편의점에서 대충 해결하지 않는 이상 식사를 해결하기 어렵다.

집중을 필요로 하는 대회에서 또 하나의 불평등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D고등학교에 다니는 H 학생은 "야자를 하지 않는 날에는 대회 때문에 학교에 남아 해서 학원에 빠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저녁을 신청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밥을 먹지 못한 채로 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식이다. 교내 대회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동아리 시간이나 창의력 체험 학습 시간과 같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을 이용해야지만 참여하고 싶은 모든 학생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대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인정되어 대회의 질 또한 올라갈 것이다.

학교와 선생님은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원을 빼라거나 개인 사정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 되는걸까? 하지만 교내 대회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의지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것이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대회라도 점수를 주고 등수를 매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공정과 형평성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취재/ 박병규(진주고2)기자]

[연말특집/ 맏칸년맏반-신청] 명신고등학교 1학년4반 편

내년에도 한번 더 할 수 없나요? 개성 있고 언제나 활기찬 우리 반이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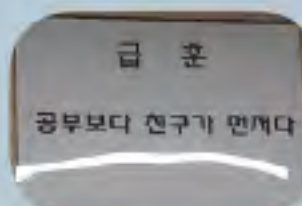


가만 보면 한 명 한 명 평범한 친구들이 하나 없습니다. 언제나 교실에는 에너지와 활기가 넘치는 반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반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을 만큼 개성 있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친한 그런 반이 있습니다. 학기 초 수업 참여도 저조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선생님들의 좋지 않은 평가까지도 뒤집어 지금은 활기 찬 반 분위기로 모든 선생님들의 '엄지 척'을 이끌어 내는 명신고 최고의 반. 바로 1학년 4반이 여기 있습니다.



담임 추현수선생님

명신고 대표 호랑이 선생님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학생들을 늘 챙겨주시는 대표 촌데레 선생님이다. 항상 엄하고 무섭게 대하시지만, 속 깊은 우리편이시다. 저희들도 잘 표현을 못하지만 선생님의 진심을 알고 있습니다. 추현수 선생님 사랑합니다.♥♥



1학년 4반의 급훈이다. <공부보다 친구가 먼저다>

당연한 말 같지만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은 말이기도 하다. 입시교육에 몰입된 우리 학교생활에서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오는 급훈이었다. 성성해보라.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반, 1년 동안 우리는 그런 멋진 반이었다.

우리반 친구들의 매력속으로!



김재원:우리 반 대표 축구 1짱이다. 보면 볼수록 더 잘 생긴 외모를 가진 소수남. 한 번 보면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김정우:말 솜씨가 좋고 재치 있어 우리 반 모두가 좋아하며 걸로로는 무심한 것 같지만 배려심이 깊은 친구다.



이상준: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확고한 철학! 그래서 공부는 안 함.^^ 친해지면 말이 무지 많은 친구다.



이동규:학교생활 하면서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다. 친구들과한 데도 잘 해줘서 모두가 편안해 한다. 빨리 누가 데려가라!



정태민:공부를 정말 진심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노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놀러 다녔는데 이젠 공부를 해 보려 노력 중이다. 자기 말하는 엄청 착하다.



김동언:우리 반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활발하여 어디서나 분위기를 up시키는 분위기 메이커다. 운동도 잘하고 좋아해서 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준다.



황원준: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긍정적이며,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다. 전혀 안 그래 보이지만 약간의 허당끼가 장착되어 있다.



손성현:여자에게 인기가 많지만, 시련의 아픔으로 오랫동안 솔로로 지내고 있는 매력적이고 몸 좋은 남자 손성현. 자주 정체불명의 애교를 부려 친구들에게 안구 테러를 가하는 위험 인물이다.



노의성:1학년 4반을 이끌고 있는 반장이다. 우리 반 대표 존잘이다. 공부 안 할 것 같은 인상과는 다르게 공부도 잘 하고 착한 친구다.



박준현:당최 진지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재미없는 드립을 매우 자주 해서 주위를 급냉시킨다. 오전 시간에는 항상 잠만 자지만,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는 특이한 친구다.



박재우:전교 최단신이지만 그 비율은 화려하다. 한겨울에도 뽕뽕뽕한 입지 않는 친구로 북극여우와 같은 두터운 지방층의 보유자다. 늘 맛을 짓을 하지만 재밌고 웃음 주는 귀여운 친구다.



이시우:적지 않은 돌끼의 소유자. 성격 나쁜 강아지를 키우며 명신고에서 얼마 안 되는 제5인격 유체다. 천식이라는 핑계로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임영종:가장 많은 별명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다.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드립으로 감분씨를 만들지만, 마음씨 하나는 착한 친구다. 축구도 참 좋아하는데, 특히 감아 차기가 기가 막힌다.



최준오:순진하고 뽕뽕한 캐릭터로 항상 원가 2% 부족한 친구. 그래도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 가끔 선을 넘는 엉뚱한 행동으로 몇몇 친구들에게 미X놈 소리를 듣곤 한다.



성훈제:언제나 과묵하다. 그런데 친해지면 잘 대해주고, 재밌는 장난도 많이 쳐서 친구들을 급 당황하게 만든다. 의외로 피아노 잘 치고 기타까지 연습 중이다.



박준혁: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 만능스포츠맨. 게임도 잘한다. 시도 때도 없이 장난을 치지만 본전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은근 귀엽고 배려심도 많아 인기있는 친구다.

나의 이상형 & 하고 싶은 말

이름	크리스마스 계획	하고 싶은 말
김재원	너♥	사랑해♥
김정우	애교 많은 여자	010-2218-8578
이상준	잘 통하는 사람	(:D)
이동규	키 160 이하 공주♥♥	연락해 줘♥♥
정태민	성격 좋고, 박보영 닮은 사람.	@xoals99 다크 고고
김동언	귀엽고 이쁜 너♥	알라뷰♥
황원준	키가 작고 귀여운 여자	초코유유 사줄 사람♥
손성현	아이유	사랑해
노의성	귀여운 사람	ui_shanggg
박준현	귀여운 사람	♥
박재우	김예원	원강 다닐사람
이시우	예쁜 사람	안녕
임영종	귀여운 사람	♥
최준오	귀엽고 착한 여자	화이트초코♥
성훈제	잘 웃는 여자	@h.un.je 피아노 신청곡
박준혁	털털한 사람	반가워~
정준수	축구 좋아하는 여자	축구 같이 볼 사람?
정민석	이가은♥	이가은 사랑해♥



정준수: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불임성 있는 성격으로 반 친구들의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외모와 다르게 야재 드립을 작렬시키는 반전매력을 갖고 있다.



정민석:지금은 열애중! 현재 우리 반에서 확인된 유일한 커플이다. (자칭)잘 생기고 은근한 미소가 매력적이라고 우긴다. 머리는 작고 키는 쪽쪽 자라는 특이 체질로 성실하고 착하다.

신청바랍니다

카톡ID : feeltong1318

이메일 : feeltong1318@daum.net

①신청인, ②신청학교, ③신청반, ④연락처, ⑤신청이유, ⑥구성내용 요약 설명을 보내주세요.



[신청/ 노의성의 명신고 1학년4반 친구들]

[특집/ 2019 SNS맛집검증 종합]



2019년 진주시

붕어빵 아자씨

[겨울엔 팔이 생각나/ 붕어빵 아자씨]

12월, 찬바람을 잊게 할 붕어빵 아자씨



찬 바람이 부는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붕어빵. 어묵, 떡볶이 등 대표적인 겨울 간식들을 갖춰 놓고 연신 뜨거운 화덕 앞에서 붕어빵을 구우며 고소한 냄새로 손님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는 가게가 있다. 입구에는 붕어빵 틀위에 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이 줄지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뜨거운 오뎅 국물속에 꼬지에 꼽힌 어묵들이 줄지어 있다. 어묵 옆에는 어묵의 배프 별간 떡볶이!! 여기가 바로 겨울 맛집 '붕어빵아자씨'다.

붕어빵 아자씨는 진주에 2곳, 신안동과 상봉동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운영하는 특별한 프랜차이즈(?) 가게다. 원조인 아버지가 먼저 신안동에 터를 잡고 운영하였는데 그 뒤에 아들이 뒤를 이어 상봉동에 분점을 내어서 일하고 있다.

○ 붕어빵 반죽은 매일 저녁에 다음날 쓸 만큼의 양만 만들어 사용한다.

○ 빵이 다른 곳보다도 톰하고 조각갈이 모양이 예쁘다.

○ 400원에 1개, 1000원에 3개, 3000원 10개

○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대기시간은 랜덤

○ 주의! 비닐봉지에 계속 넣고 있으면 눅눅해진다.

○ 여름에는 눈꽃빙수를 판다.

진주에선 9개 매장이 있다

땡초김밥은 지난 2003년 본점인 진주 대안동을 시작으로 총 19개의 가맹점이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다. 진주에는 땡초김밥 본점을 비롯 금산점, 하대점, 신안평거점, 옥봉점, 충무공동점 등 9개 매장에서 땡초김밥을 만날 수 있다. 땡초김밥은 16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통해 진주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진주가 자랑하는 별미 음식이다.

▲땡초김밥 본점은 진주 시내 차없는거리내에 위치하고 있다.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069번길 10)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니 꼭 알아두셔서 헛걸음 할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땡초 김밥 (2줄에 6000원) 다진땡초+깨밥+다진당근/ 매운 정도 ★★★★★

땡초 속김밥 (2줄에 6500원) 다진땡초+깨밥+단무지+어묵+당근+맛살+계란지단+오이/ 매운 정도 ★★★★★☆

땡초 참치김밥 (2줄에 7000원) 다진땡초+깨밥+단무지+어묵+당근+맛살+계란지단+오이+참치마요+깻잎/ 매운 정도 ★★★★★☆

◆하강영(대이고2) 기자 :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으로서 매워서 눈물이 맺혔다. '땡초김밥'의 대표메뉴로써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도 한번쯤은 먹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륜 진사갈비 신안점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비를 가다]

양념갈비에 음료와 밥도 무한리필! 과연 그 맛은?



진주시 내에는 6개의 체인 매장이 있다. 평거점/ 금산점/ 신안점/ 주약점/ 초전점/ 혁신도시점이다.

영업 시간은 매일 12:00~23:00/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저녁 11시까지 영업을 한다. 평일에는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주말에는 없다고 한다. 무한리필이긴 하지만 제한 시간이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 시간이 100분으로 제한된다고 한다. 평일에는 120분이다.

-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공기밥, 음료 포함)

- 성인 13500원 / 8-10세 8000원 / 5-7세 6000원

- 무한리필 이용시간 : 평일 120분/주말 100분

※포장 불가(반려동물에게 주다고 해도 불가) ※매장 내 모든 음식은 내부에서만 식사 가능

◆ 전규원(경해여고2)기자/ 평거점 고든랜저^^

"고기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 불구하고 정말 만족스럽게 먹은 것 같다. 밥이나 음료가 무한리필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냉면을 주문하고 금방 바로 가져다 주셔서 감동스러웠다. 다만 너무 더워서 겨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연통을 직접 조절해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갈비 맛은 정말 좋았고 개인적으로 고기 굽는 재능에 눈을 뜬 것 같아 즐거운 시간이었다."

가마솥 팔칼국수

[겨울엔 팔이 생각나/ 가마솥 팔칼국수]

12월, 찬바람을 잊게 할 가마솥 팔칼국수



추운 겨울, 보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느낌의 외판이다. 정겨운 간판에 먹음직스러운 음식과 가마솥이 함께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진주 평거동에 위치한 가마솥 팔칼국수다. 소금과 설탕, 동치미와 깍두기, 팔칼국수에 대한 반찬이 필요 없지만 깍두기가 칼국수를 더 감칠맛 나게 한다. 추운 겨울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팔칼국수는 이제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닐 듯 하다.

팔칼국수 6,000원/ 새알팔죽 7,000원이다

◆진서영(삼현여고1)기자

"칼국수는 좋아하고 팔은 싫어하는 편이라 둘의 조합이 너무 궁금했다. 조금 걱정했지만 칼국수의 쫄깃함과 팔의 고소함 두 가지를 모두 맛볼 수 있었다. 소금과 설탕이 식탁에 놓여있어 취향에 따라 먹을 수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무 것도 넣지 않은 것이 더 맛있었다. 동치미가 되면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이였다."

1440 수제 이야기

[돈가스 전문점 1440수제이야기]

하루 1440분의 비밀 골목식당 돈가스가 이런 맛 아닐까요?



칠암동 미르치와 골목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색 건물이 보인다. 벽면은 건물 내부가 잘 보이는 유리로 되어있어 바깥에서도 가게의 깔끔한 인테리어 구조를 볼 수 있다. 간판엔 1440이라는 숫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다. 하루는 24시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이다. 여기서 판매되는 돈가스와 가라아게를 만드는 재료, 즉 고기를 하루 24시간 (1440분) 동안 숙성시키기 때문에 이름을 1440 수제이야기라고 지었다고 한다.

-경남 진주시 강남로 189번길 24-1(☎ 055-755-1440)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마지막 주문은 9시 30분까지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

◆강인원(진주제일여고1)기자

24시간 숙성의 정성이 들어간 만큼 고기가 부드럽고 맛있었다. 기름에 잘 튀겨

져 먹자마자 튀김옷의 바삭함이 느껴졌다. 일반 돈가스와 달리 고기가 두껍고 쫄깃쫄깃하고 튀김옷은 바삭해서 아주 좋았다. 같이 나온 파인애플과 누룽지가 들어간 돈가스 소스는 달콤하면서 고소했다. 소스도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색다른 맛이었다. 몇 조각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속이 고기로 가득 차 있어서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돈가스가 질려져 나와 먹기 편해 좋았다. 장식이다 보니 밥, 샐러드 등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다.

필통 맛집 지도

디델리
라볶이

[진주 대안동 디델리 라볶이]

라볶이가 땡길 때,
우리는 차없는거리 디델리로 간다?



★디델리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069번길 3-1(대안동 14-5)/ 차없는 거리내에 위치해 있다. 15년 동안 같은 자리, 같은 사장님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주메뉴는 라볶이와 참치김밥이다. 라볶이 5,000원/ 치즈라볶이 6,500원/ 참치김밥 3,000원이다. 사장님께서 라볶이 그릇 뜨겁다고 조심하라고 말해주신다! 데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진주 디델리는 중고등학생들의 단골집이죠. 그 단골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많이 찾는 집인 것 같아요. 치즈라볶이 강추합니다. 갈 때마다 항상 그 맛인 것 같아요! 라볶이 안에 가래떡도 있지만, 떡국떡도 있고, 만두, 계란, 라면사리가 있어 좋아요.”

◆ 김민수기자(경남예고2) : “요즘에 많이 대체가 되는 떡볶이와는 다르게 자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디델리’ 만의 장점인 것 같고 먼저 먹었을 때 ‘맵다’ 라는 느낌보다 ‘달다’ 라는 느낌을 가장 먼저 느꼈다. 그런데 느끼하지 않고 적당히 달아서 먹기가 좋았고 맛있었다. 확실히 메인메뉴답게 그리고 학생들 입맛을 고려해 만든 음식답게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것 같았다.”

[겨울엔 팔이 생각나/ 수복빵집]

수복빵집

12월, 찬바람을 잊게 할 수복빵집



요즘 청소년들에게 마카롱이 있다면, 젊은 시절의 부모님에게도 ‘핫한 디저트’가 있었다. 바로 ‘편빵’이다. 80, 90년대 학생들의 미팅 성지가 되기도 했던 빵집. 특히 진주시에서는 선생님이 빵집을 단속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바로 ‘수복빵집’.

○위치 : 경남 진주시 축석로 201번길 12-1(평안동 151번지)

○전화 : 055-741-0520

○운영시간 : 매일 12:30~15:30까지 재료 소진시 마감하기도 한다

○메뉴 : 편빵, 단팔죽, 꿀빵, 팔빙수를 판다. 편빵(4개/1인분) 3000원, 팔빙수 6000원.

편편한 빵 위에 달달한 단팔 소스가 얹어진 편빵이 대표 메뉴인 수복빵집은, 편빵뿐만 아니라 꿀빵, 단팔죽, 그리고 팔빙수까지 판매 중이다. 수복 빵집의 편빵을 직접 먹어보니 이때까지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였다. 속에 팔이 든 편빵과는 달리 미끈한 단팔 소스가 에워싼 수복 빵집의 편빵은 입안에 달콤함을 더해 주었다. 진주 대표 빵집이며 SBS ‘생활의 달인’ 등 여러 방송에도 전파를 탄 유명한 곳이다.

마라탕
라맛콩부

[하대동 마라탕 맛집 라맛콩부]

얼얼할 마, 매울 라
인싸 음식 마라탕 도전기!



각종 sns에서 유행 중인 마라탕, 마라탕은 중국 샤브샤브에서 변화된 중국 전통음식이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중급음식 특유의 향신료를 사용하지 않아 시원한 국물 육수에 각종 재료를 넣고 끓인 얼얼한 국물 맛이 특징인 탕 요리이다.

-위치 : 진주시 모덕로 221(하대동 343-10번지)

-영업시간 : 오전 11시 ~ 오후 11시

-휴무일 : 2,4째 주 월요일은 쉽니다.

얼얼할 마(麻), 매울 라(辣)

쓰촨 라산에서 유래한 중국의 음식이다. 특히 베이징에서 유행한다. 휘궈와 비슷한 종류이며, 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동북지역에서는 마라환(고치)이라고 불리며, “쓰촨 마라탕”이라고 불리는 음식과는 그다지 비슷하지 않다. 고치를 육수에 담가 샤브샤브처럼 먹는 마라탕도 있으며, 원하는 재료를

담아 한번에 조리하는 마라탕도 있다. ‘마라’라는 얼얼한 맛을 내는 중국 향신료를 이용해 만든다. 마라는 얼얼할 마(麻), 매울 라(辣)라는 뜻으로, 맵고 얼얼한 탕 요리이다. 마라탕의 혀가 얼얼하게 마비되는 듯한 느낌은 화자오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 민세연(선명여고2)기자 : 처음은 그냥 맛있는 정도였지만 먹다보면 중독이 되어 계속 먹게 된다. 얼얼하고 얼얼하고 정말 맛있다. 먹고 있으면서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집에 가면 자꾸 생각 나서 다음날 또 가게 된다. 마라탕에 들어갈 재료를 내 취향대로 고르고 맛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다. 먹고 나면 마라탕이 유행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춘천
닭갈비
본점

[춘천닭갈비 진주본점을 찾아서]

삼현여중 앞, 춘천닭갈비
짜통닭갈비가 생길 정도의 닭갈비 클래스



삼현여고 닭갈비란 브랜드(?)가 생길 정도로 유명한 학교 앞 맛집의 선두주자. 삼현여고 앞 춘천닭갈비다. 식당안은 늘 손님으로 가득하다.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뷰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삼현 닭갈비를 찾는다. 9,000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이고 한 끼 식사로 학생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둘러앉은 학생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000원추가시 볶음밥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위치 : 경남 진주시 돛골로 122 (상대동 삼현여중 앞)

-영업시간 : 매일 11:00 ~ 24:00 (일요일 휴무) / 14시부터 17시까지는 브레이크타임이다.

◆ 원지현 기자 / 오후만 되면 손님으로 가게가 꽉 차는 이유를 알 거 같다. 치즈와 닭갈비의 조합은 역시나 매우 맛있었다. 나중에 주문한 볶음밥도 김 가루가 듬뿍 뿌려져 있어 고소하고 맛있었다. 친절함 사장님이 직접 닭갈비를 요리해 주신다는 점에서 대접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닭갈비의 맵기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매운 음식은 못 먹는 사람도 부담이 없었다. 또 닭갈비가 너무 맵더라도 미리 나오는 시원한 동치미 국물로 입안을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끔은 매운맛에 도전 해봐도 될 것 같다.

[가좌동 '사마'를 찾았습니다]

사마

요즘 난리 난 육즙폭탄 대창덮밥!
직접 드셔보셨나요?!



사마는 깔끔하고 정갈한 분위기다. 일본식 카레 전문점이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운영하고 계신다. XNO JAPANX 최근 일본불매운동 때문에 걱정이지만 일본브랜드도 아니고 일본산 식재료도 아니니 편하게 찾아도 될 듯하다.

조금 골목길에 있지만 대학 근처에 자리한 만큼 분위기 좋은 외관으로 시선을 끈다. 일식집의 동양적인 분위기와 약간은 서양적인 건물 모습이 세련되게 어울려진다. 최근 맛집으로 등극하며 피크타임에는 웨이팅도 있고 오후만 되면 재료가 항상 소진 되는 핫한 식당이다.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길64번길 3-1 1층 (가좌동 1436-5번지)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오후9시(3시~5시 브레이크 타임)/ 주말 11시 30분

◆ 정보경(진주중앙고1)기자

밥 위에 통통한 대창이 많이 올라가 있어 꽤 놀랐다. 개인적으로 이 가게 메뉴 중에 가장 맛있었다. 달달하고 짭조름한 간장소스와 매운기를 빼고 아삭한 식감만 남은 생강파 그리고 고소한 노른자와 밥의 조합이 정말 최고였다.(행복한 맛)

3.1운동 100주년, 여전히 학교에는 일제 잔재

학교내 친일 잔재들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그리고 해방 74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주의 망령과 그들이 할퀴어 놓은 아물지 않은 상처에 아파하고 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현대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이에 일제 잔재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다.

바로 학교다. 적어도 이제 모른 채 지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없애고 바꾸고 고칠 수 있을테니 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얼마 전 있었던 졸업식 때 교복을 훼손하는 뒷풀이와 교실 칠판 위에 있는 태극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졸업식이 끝난 후 밀가루를 뿌리고 교복을 찢는 모습을 보곤 한다. 일제시대 때 학생들은 일본식 교복을 입어야 했기에 졸업을 함으로써 교복을 더 이상 입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교복 찢기와 밀가루 뿌리기로 분출한 것이

유래가 된 졸업뒤풀이는 결코 웃으며 넘어가선 안 될 슬픈 역사가 숨어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 속에서 항상 교실 칠판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일제강점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극기를 액자 안에 넣어서 게시해 놓은 학교들이 많았다. 이것은 일제가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일장기를 액자에 넣어 게양했던 것에서 유래 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 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일제잔재의 하나로 꼽히는 운동장 조화대(구 령대)도 지금도 위풍당당하게 운동장을 지키

고 있다. 성적표기 방식으로 '수-우-미-양-가' 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 전국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느냐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학생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식민지 잔재청산문제는 더 깊은 곳까지 스며있다. 식민지시대 교명을 그대로 쓰고 있는 학교가 너무 많다.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 중학교, 동중, 서중, 중앙고, 제 1고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은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라는 것에서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 도 그대로다.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9
BEST
기사

한국사 시간 혹은 평상시에도 일제강점기를 배우거나 일제잔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100이면 10명 모두 다 그 당사를 떠올리며 분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친일잔재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친일 청산도 중요하지만 별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린 학교 속에 숨어 있는 식민지시대의 흔적을 살펴보고 적은 것부터 바꾸고 고쳐나가는 노력이 절실해지는 요즘이다.

[취재/ 정병훈(진양고2)기자]

10시면 왜 모두 청소년 유해장소가 되는가?

PC방 노래방 10시 출입금지 전면 재검토되어야...

청소년들은 PC방, 노래방에 자주 간다. 시간을 때우러 가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찾기도 한다. 이 장소들은 공통점이 있다. 밤 10시부터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제 학생들 스스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만고의 진리처럼 된 규제다. 하지만 대체 왜? 9시59분까지는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며 친구들과 함께 있던 공간이 1분 만에 불법장소, 청소년 유해 환경이 되어 버리는지 청소년들에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적으로 보호자를 동반하면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출입할 수가 있다. 노래방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숙하

고 어린 청소년들이 밤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10시 이후에는 안전한 집에 있으란 애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현실 청소년들에게 10시는 너무나 이른 시간이고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이다. 같은 시간 학교 야간자율학습이 마칠 즈음이고 학원가에는 학생들로 넘쳐나는 시간이다. 똑같은 시간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 있거나 편의점이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괜찮고 건전하며 노래방, PC방, 찜질방 등에 있으면 불법이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는 비행 청소년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막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노래방과 PC방이 유해 업소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과연 PC방과 노래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일까? 아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스트레스를 푸는 곳이다.

숨통처럼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마저 청소년보호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을 완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옳지 못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10시 이후 그 어떤 곳에서도 청소년들은 있으면 안 된다. 모두 강제 귀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야간자율학습,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되고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놀면 안 된다는 논리는 그 누구도 이해 할 수 없는 해괴한 이야기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또 학교를 마치고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다. 그 외에도 늦은 시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환경속에 거의 유일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이자 놀이공간이 노래방과 PC방인 셈이다.



2019
BEST
기사

10시라는 기준을 두고 학생들의 현실적인 문화공간이자 스트레스 탈출구인 PC방이나 노래방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분명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이다. 백 번 양보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활동 시간을 고려해 보더라도 출입규제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PC방과 노래방에서 청소년들을 내 쫓는 것이 어떻게 청소년 보호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잘 놀게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 그것이 곧 청소년을 진정 보호하는 길이다.

[취재/ 김의석(대야고2)기자]

거스름돈, 백 원 돌려주세요!

시내버스 요금 결제시 거스름돈 지급문제 개선해야

버스는 학생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친구들과 놀러 갈 때, 급하게 어디론가 가야 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버스일 것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현금을 내거나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버스를 이용할 때 누군가가 내 돈을 가로채거나 훔쳐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생들은 버스를 탈 때 대부분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보통은 그냥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타면 된다. 그런데 교통카드를 새로 사거나, 부득이하게 성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카드를 단말기에 찍을 땐 "학생이요!" 라고 말하고 타야 한다. 그러나 요즘 버스기사들은 이 말을 못 들은 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혼잡스럽기도 하고 빠르게 출발해야 하는 버스에서 그냥 성인 요금을 찍고 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생은 정

당하게 학생 요금을 내면 되고 버스회사는 당연히 학생에게는 학생 요금을 받아야 한다. 왜 오히려 학생들이 눈치를 살피며 성인요금을 결제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돌려받지 못한 돈은 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다.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탈 때도 이런 상황은 똑같이 발생한다. 교통카드를 집에 두고 왔을 때, 또는 교통카드에 돈이 충분하지 않을 때 학생들은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된다. 문제는 버스 기사들이 정확히 계산해 거스름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1일부터 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진주시의 버스 요금은 현금시 어린이 650원, 학생 900원, 성인 1,300원이다. 학생들이 1,000원을 내고 버스를 타면 거스름돈 100원을 거슬러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버스비로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해보았다. J고 정○○학생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을 때 학생 돌이요 라고 말했는데 성인 요금으로 찍혔어요." B고 박○○학생 "교통카드가 성인으로 되어있어서 등교하는데 학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못 들은 채 하시길래 직접 요금 입력하고 카드 찍었어요." "현금밖에 없어서 1000원을 냈는데 기사 아저씨가 반응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또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1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라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일까? 복잡하고 바쁜 시간에 거스름돈까지 요구하는 것은 버스나 버스기사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소한 문제니까 그냥 넘겨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권리고 또 정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얼마가 되던 거스름돈을



2019
BEST
기사

정확히 돌려받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물론 모든 버스기사들이 다 그런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버스회사와 버스기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100원 주세요' 라고 말이다.

[취재/ 박서진(진양고1)기자]

저도 급식 먹고 싶어요

학교에서부터 식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반박불가 급식시간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행복할 시간일 것 같은 이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런 학생들 있다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보아라. 주로 고기류,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기와 밀가루 음식을 선호한다. 그런 음식이 많이 들어간 날은 '맛있는 날' 이라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맛없는 날' 이라고 하며 급식을 많이 남기거나 먹지 않고 다른 음식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연 누구에게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있는 날' 일까? 하지만 채식주의자나 여러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맛있는 날' 은 그들에게

는 맛있는 날이고, '맛없는 날' 은 그들에게 맛있는 날이거나 괜찮은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채식주의자는 고기가 나오는 날이면 급식을 잘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 어패류, 과일, 유제품, 밀가루, 견과류 등 음식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도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나오는 날이면 급식을 먹기 힘들어 한다.

'ㄷ' 고등학교 a양은 "저는 고기를 먹지 않는데 저희 학교에 주로 고기음식이 나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매점에서 라면을 먹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 먹어요." 라고 말했다.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b양은 "저는 유제품 알레르기가 심해서 먹으면 바로 두드러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유급식을 하지 않았고, 급식에 유제품이 나오면 힘들죠." 라고 했다.

이런 조금은 다른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식소수자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의 급식 시스템은 여러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고 자신의 취향에 맞게 스스로 취사 선택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정해져 있는 식단대로 일괄적 배식을 해주는 방식이다.

우리는 과연 주위의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충분한지 자주 돌아봐야 한다. 학교에도 분명 이러한 식소수자들이 존재한다. 식생활에서도 소수자가 존재할 수 있음을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이 먼저 인식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소수자들에게 '왜 안 먹어? 한번만 먹어봐' 하며 그들의 상황을 너무도 쉽게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지 모른다. 오히려 그들이 눈치를 받고 강요를 당하기 일쑤다. 이들도 먹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식생활에도 소수자



2019
BEST
기사

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다. 그들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제도와 시스템 변화로 이루어 질 수 있다. 학교에서 먼저 식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크고 작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재/ 민세진(진주제일여고2)기자]

누구인가, 누가 내 쉬는 시간을 가져갔는가?

교과교실제,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과교실제, 한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교과교실제'란, 각 교과별 특성에 맞춘 전용 교실을 설치해 교과별로 학습환경을 꾸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참여형 활동수업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교육 현장에 도입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학생은 개인 사물함에 짐을 두고 시간표에 따라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다. 교과 교사가 각 교실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급교실제보다 전문성이 확대되며 교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제도는 결국 문제점들만 쌓여 갈 뿐이다. 실제 학교에서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과교실제는 어떠할까?

중,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하지만 쉬는 시간 10분 안에 매번 휴 배이스에서 교과서를 챙겨 각 교실로 이동하기엔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쉬는 시간이 사라졌다. 쉬는 시간은 계속되는 수업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다음 공부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또는 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달콤한 쪽잠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과교실제로 인해 화장실을 가거나 선생님의 심부름을 가기도 해도 수업에 지각하기 일쑤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은 이유를 듣지도 않고 늦은 학생들을 무단 지각(비인정결) 처리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쉬는 시간 10분을 교과교실제에 빼앗긴 꼴이다.

현재의 교과교실제는 유명무실이나 다름없다. 매 시간마다 교실이 바뀌기는 하지만, 교실 내부 구성은 똑같다. 수업 방식 역시 교과

교실제가 시행되기 이전과 별다를 바가 없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쉬는 시간을 온전히 활용할 수 없고, 매 시간마다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은 변함이 없고, 무엇보다도 한 교실을 여러 학년이 나눠서 사용하게 되니 분실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우열반 형식으로 편법 운영되는 학교도 있고, 교사들의 준비가 미흡한 점 등,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학교는 넓고, 교실은 멀고, 쉬는 시간은 전과 다름없으니 동선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교실을 이동하고 책을 챙기는 데 쉬는 시간을 모두 허비하게 된다.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니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2019
BEST
기사

교과교실제를 시행하려면 제대로 된 운영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먼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15~20분으로 늘리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체육관 사용을 허가하는 등의 학생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제공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기본적인 학생들의 요구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 박서진(제일여고1)기자]

학교내 무상으로 생리대 비치를 의무화해야...

학생들의 생리대 요구는 인간의 기본권, 예산 마련 시급하다

여학생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 생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발한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갑자기 생리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생리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자신의 주기를 잘 모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생리대를 소지하지 않거나 깜빡 잊고 다니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리를 하게 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생리대를 빌리게 된다. 여학교에서는 그다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남녀공학에선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학교 보건실에 항상 생리대가 비치되어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실에 온열 팩과 진통제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정작 제일 필요한 생리대는 비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 비치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무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무상이더라도

몇 번 반복되면 눈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매달 어김없이 생리통에 시달리고 귀찮게 생리대를 착용해야 한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고 차이가 있지만 일주일 이상 고통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상 생활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통증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뒤따른다. 더구나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사회 생활속에서 받게 되는 어려움 또한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성의 생리는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인류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생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면 계속적인 종족번식을 위해 생리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암컷은 임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류는 자신들의 가족제도와 사회제도를 만들면서 여성

들이 생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즉, 우리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 여성의 생리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학교나 교육청에서 생리대 예산을 마련하는 것만큼 시급한 일도 없을 듯하다. 물론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100% 지급해 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 보건실에서 눈치 안 보고 생리대를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보건실뿐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면 될 것이다. 물론 처음엔 학생들의 마구잡이 이용이나 사재기식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지급 방식과 학생



2019
BEST
기사

들의 인식 개선에 따라 좋은 제도로서 자리 잡히게 될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올 해부터 여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학교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화장실, 각 교실에 비치한다고 한다. 불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충분히 실현가능한 제도임을 보여준다. 우리 경남도 하루 빨리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아니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취재/ 진가희(진주중앙고2)기자]

[특집/진주투어] 추워지는 날씨~ 찜질방 어떨까요?

친구, 가족, 혹은 연인들과 함께 세대 불문 핫 플레이스 찜질방투어!

테마 건강랜드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76번길 11)

24시간 운영 되는 찜질방으로 10시부터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고 그 이후의 출입은 부모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금은 7세 이하 6500원, 초등학교생 7500원 청소년 8500원 성인 10000원으로 책정 되어 있다. 찜질방 내부에 휴대폰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고, 식당 역시 있지만, 와이파이에는 지원 하지 않는다.



진주 스파랜드

(주소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610-2번지)

서진주 스파랜드는 1,170m 지하공로부터 올라오는 자연 그대로인 천혜의 유황 알카리수와 탕에서 느끼는 천연유황의 냄새는 이미 입소문이나 널리 알려진 곳이다. 여러가지 테마별 찜질방에서부터 하늘이 보이는 노천탕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연건평 1,200평 규모의 넓고 쾌적한 호텔형 찜질방이라 홍보하고 있다. 요금은 중고생 포함 성인이 10,000원이다. 다른 찜질방과 달리 진주시내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명석면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이용하기엔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이 아쉽다. 물론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140번)



매년 겨울, 나무가 앙상해지고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뜨끈뜨끈한 찜질방, 대나무 등등 찜질방에 앉아 땀을 빼는 것이 먼저 생각난다. 찜질방 청소원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찜질방에, 게르마늄이 땀 빼고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그런 곳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요즘 찜질방이 단순히 목욕과 찜질만 하는 곳이 아니라 편하게 쉬는 공간도 있고 음식도 먹으며 게임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여가시설로 발전되면서 청소년들도 친구들과 한 번씩 놀러 가는 경우도 많아졌다. 쌀쌀한 날씨, 학생들도 친구들과 어울려 찜질방을 놀이공간 삼아 가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되겠지만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가지기에도 좋은 공간이 될 듯하다. 한결기로 인해 기력이 쇠해진 몸을 찜질방에서 회복해보는 것이 어떨까? 필통기자들이 진주 지역 찜질방을 둘러보았다.

금산 황토 참숯 찜질방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송백리 571)

숯을 만들고 난 후 열기가 남아있는 숯가마에서 찜질을 하는 독특한 찜질방 구조이며 다른 찜질방과는 다르게 야외에 위치해 있다. 황토 숯가마는 중온과 고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식당이 있어 찜질방에서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며,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굴 안속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7세 이하는 3000원, 7세 이상은 6000원의 요금이 책정 되어있다. 수건 이용료가 1500원이나 수건은 챙겨 가면 좋다. 시내 외곽지역이라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물론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353번)



패밀리존 찜질방 사우나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901 동성가든 타워)

동성가든 타워 내부에 위치해 있으며 24시간동안 운영된다. 저녁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미성년자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부모님 동행 할 경우에만 미성년자 출입이 가능하다.) 찜질방 내부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하며 중학생 이상은 요금이 10,000원이고 이는 어른요금과 동일하다. 찜질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옷과 함께 이불을 제공한다. 또한 콘센트가 곳곳에 있어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충전이 편리하다.



참숯굴 건강랜드

현재 내부수리중!
찜질방 영업은 안함

(주소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25번길 8 원정 로얄 팰리스)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이다. 찜질방 내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성인에게는 10000원, 중고등학생 8000원, 초등학교생은 6500원, 미취학 아동에게는 4000원의 요금이 매겨진다. 찜질방에 들어갈 때 옷과 이불을 제공한다. 찜질방 입구 앞에 식당이 위치해있어 목욕 후 허기진 배를 달랠 수도 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시간은 저녁 열시부터 아침 아홉시까지이며 이 시간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찜질방 상식 Q&A



Q1 찜질방과 사우나, 한증막의 다른 점은?

A 찜질방은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땀을 내는 열기욕이란 점에서 사우나, 한증막과 비슷하다. 내부 온도는 찜질방 40~80℃, 건식 사우나 70~100℃, 한증막 70~130℃로 찜질방이 가장 낮다. 찜질방이 사우나, 한증막과 다른 점은 원적외선이 방출된다는 것. 700℃ 이상 고온으로 달궈진 찜질방의 황토, 맥반석, 게르마늄 등에서 발산하는 원적외선이 피부 속 4~5cm까지 침투해 세포 운동은 물론 혈액순환도 활발하게 해준다. 불가마는 맥반석, 옥, 수정 등의 발열물질이 막 달궈져 나오는 것으로, 온도는 약 90℃. 고온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불가마를 마련해놓은 찜질방도 많다.

Q2 찜질방에 가면 정말 피부가 좋아질까?

A 찜질방의 높은 습도는 각질층의 수분을 증가시키고 높은 온도의 원적

외선이 피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준다. 또 원적외선을 쬌며 땀을 내면 노폐물이 빠져나와 피부와 몸 속 깊숙이 남아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하지만 피부를 장시간 고온에 노출시키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이 있는 경우 악화될 뿐만 아니라 피부가 더욱 건조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피로가 풀리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찜질방을 너무 자주 이용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이용 횟수는 한달에 1~2회 정도가 적당하다.

Q3 찜질방에서 난 땀은 그대로 둔다?

A 외선이 피하층을 뚫고 들어가 노폐물이나 지방 분해물이 함께 배출되어 나오는 땀이다. 찜질방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땀을 흘리는 것은 좋지만, 어떤 종류의 땀이든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 찜질방에서 흘린 땀은 씻지 않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가마나 원적외선 방에서 땀을 낸 후라면 열린 모공 사이로 다시 흡수되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다.

Q4 찜질방에서 파는 음식은 다 이유가 있다?

A 구운 달걀, 식혜, 냉커피, 미역국

등은 찜질방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 메뉴. 식혜는 갈증 해소 및 수분 보충에 효과적이고,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해 허기졌을 때 먹으면 그만이다. 또 미역국은 철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주어 고온에서 땀을 많이 빼 지친 몸을 좋게 한다. 간혹 목이 마르다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 몸에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Q5 아이들이 찜질을 해도 좋을까?

A 수분만 충분히 보충시켜주면 아무 문제없다. 단, 아이들은 체온 조절 기능이 어른보다 떨어지므로 찜질시간은 5~10분 정도가 적당하다. 연약한 피부를 위해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말 것. 하지만 심폐량이 적은 6세 이하는 찜질을 삼가게 좋다.

Q6 찜질방에 가면 술이 갠다?

A 숙취는 뜨거운 열이나 사우나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간의 해독작용을 거쳐야 없어진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저혈압증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하다. 술을 마신 다음날 찜질방에서 땀을 빼주면 숙취를 유발하는 알코올 성분 중 아세트알데히드 물질이 쉽게 분해돼 두통이나 뒷목이 뻣기는 증상이 누그러질 수는 있다.

청소년 심야에도 찜질방 출입 가능하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 청소년들의 밤 10시 이후 찜질방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한 위헌 소송이 있었다. 청소년들이 밤에도 찜질방 가게 해달라 소송을 했을까? 물론 아니다. 바로 찜질방 업주들이 소송을 냈지만 결국 이 소송은 기각 되었다. 즉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진 것이다. 그래서 현행법상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부모 등 친권자가 동반하거나 출입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독자토론방] 학원 일요일휴무제 시행 권고

“학생도 쉬자” 학원 일요일휴무제 실제로 가능해?

학원 일요일휴무제 시행 권고했지만... 시행 미지수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 일요일에는 학원 문을 닫게 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학생들을 쉬게 하겠다는 취지에서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교사·일반 시민 등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학원 일요일 휴무제 도입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어. 이에 학생과 학부모, 학원업계가 술렁였지.

서울시교육청 학원일요일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1월26일 학원일요일휴무제 관련 숙의 토론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청에 학원일요일휴무제 시행을 권고했어. 2주간 숙의를 진행한 시민참여단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 여론이 반대의 2배로 나타났다고 해. 공론화 착수 전 조사에서 59.6%였던 찬성 여론은 1차 조사에서 53.8%로 소폭 감소했으나, 마지막인 2차 설문조사에서 62.6%로 늘었지.

서울 학생·학부모·교사·시민 3만4655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여론조사에서도 모든 계층에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높았어. 학생 1만9299명 중 62.8%(반대 21.4%), 학부모 1만1846명 중 63.8%(반대 28.2%), 교사 2510명 중 66.3%(반대 23.1%), 시민 1000명 중 64.3%(반대 20.9%)가 일요일에 학원 휴무를 강제하는 안에 찬성했어.

학원일요일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내세운 핵심공약이다. 지난 8월 기준 서울 내 학원·교습소는 총 2만3048개소로, 교육청이 1133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45.5%)인 516개소가 일요일에도 학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

조 교육감은 그러나 시행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어.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찬성 여론이 높지만, 그로 인한 사교육 감소 및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높기 때문인거지.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도 걸림돌이라고 해. 법제처는 현행 학원법으로는 교육청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고, 법률로만 휴무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학원법이 개정되면 총선 이후 국회가 재구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여. 또 법 개정은 서울을 넘어 전국에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 정치권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도 미지수인 상태로 보여.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찬성하는 이들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야. 반면에 반대하는 이들은 평일에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일요일 학원 수강이 절실한데, 이를 강제로 막으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선택권이 훼손될 거라 주장하지. 이에 대한 너희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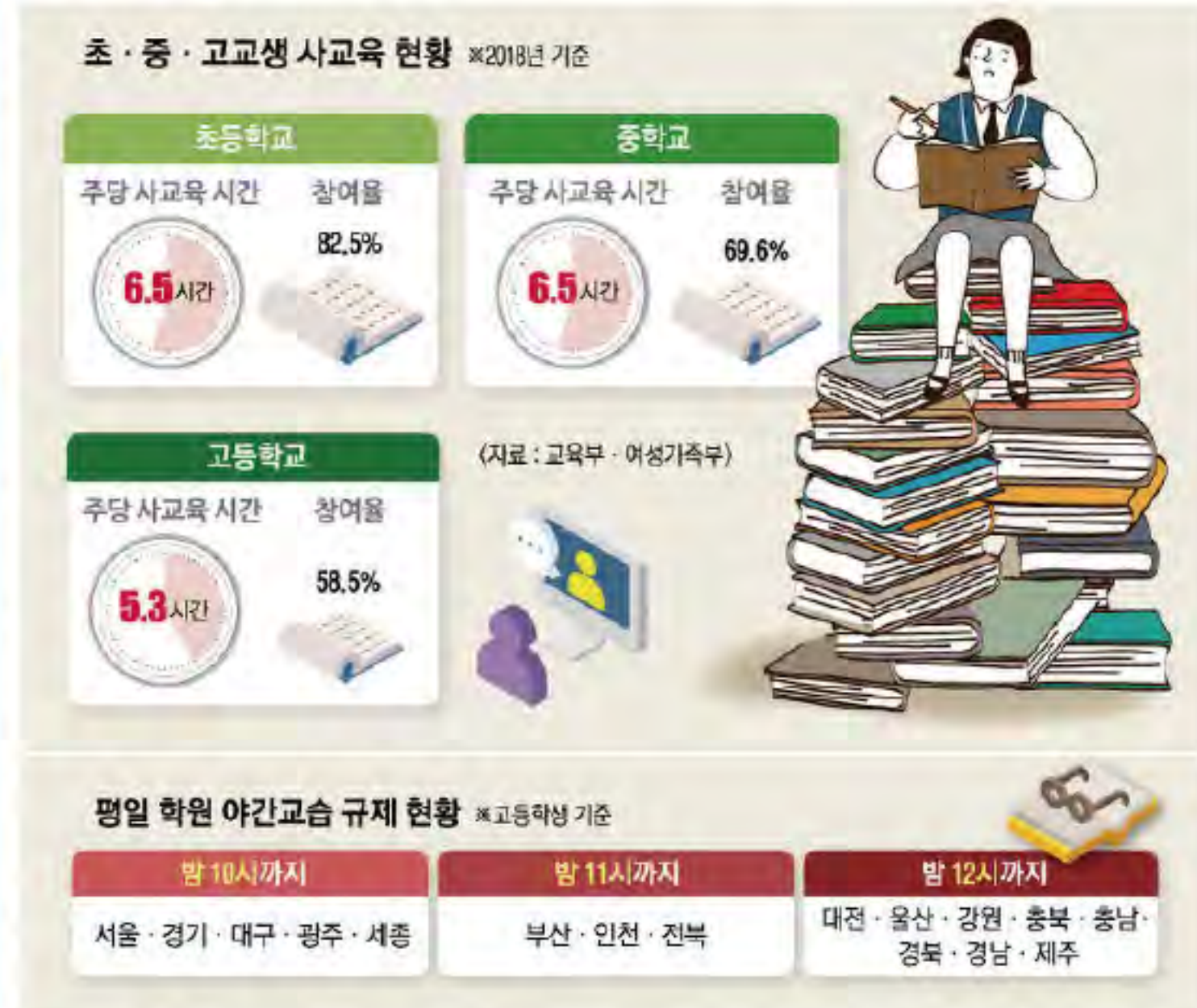


필통기자 생각

PRESS 학원 일요일휴무제 다시 말해 일요일에는 학원의 운영을 금지하겠다는 제도이다. 이른바 학원 뺑뺑이 속에 매일 쳄바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요즘 학생들에게 일요일만큼 쉬게 해주자는 것이다. 또한 점점 심해지는 교육 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학원 휴무제가 위에서 말하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회의적으로 본다. 일부 특정 대학교나 직업을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풍토가 변하기 전까진 어떤 방법을 써서든 자기 자식을 더 공부시키고자 하는 부모는 학원 일요일 휴무제가 존재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 또는 편법적인 방법은 더욱 교육의 차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공교육의 향상으로 사교육의 수요를 낮춘다면 더 효과적으로 앞에서 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곽병규(진주고2)기자

PRESS 학원일요일휴무제에 반대한다. 학원이 일요일에는 휴무하더라도 어쨌든 학원은 변함없이 존재 할 것이다. 그 말은 일요일에는 학원이 쉬더라도 일요일에 못한 것은 다른 날에 대체되어 학원에서 수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면 학원 일요일휴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학생들은 몰린 수업 때문에 더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 할 권리, 마음대로 공부 할 자유를 해치는 것 같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은령(진양고2)기자



나는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반대한다.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학원 문을 닫아 학생들을 쉬게 하지는 취지는 좋지만 평일에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주말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공부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학생은 주말에 학원을 다니고 싶은데 법으로 일요일에는 학원을 쉬도록 일방적으로 제한한다면 또 다른 피해를 날게 된다. 공부효율이 떨어지는 학생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소진(경해여고 2학년)



저는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반대합니다. 학원 수업을 언제 듣고 언제 쉬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지, 국가에서 정해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기에 주말에만 학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한다면 저 처럼 부득이하게 주말에만 학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 언제 가는지는 개인의 자유에 달려있기에, 국가에서 강제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명빈(진주고 2학년)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대해 찬성한다. 학생들에게는 일주일에 몇 번만 가는 학원도 있는 반면 일주일 내내 가야하는 학원도 있다. 도대체 학생들은 언제 쉴 수 있나? 또 언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가? 이처럼 일주일 동안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여가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 이외의 시간이 허용되어선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학원 일요일휴무제가 실시된다면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쉬으로써 공부에 대한 집중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최고은(진양고 1학년)



나는 일요일휴무제에 찬성한다. 일요일휴무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학생의 수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휴식은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나는 관점을 조금 바꿨을 때 일요일휴무제를 실행한다면 사교육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요일휴무제의 실행으로 일요일만큼은 사교육을 멈출 수 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 그것은 학생의 자유다. 사교육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은 입시라는 조건에서 힘들기에 일요일휴무제를 통해서라도 입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것이다. 학습의 연장선상의 사교육은 학생의 자유권 침해이다. ▶박재형(진주고 2학년)

저는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대해 반대해요. 이 제도의 목적은 사교육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일요일만이라도 여가생활을 즐길 여유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오히려 법을 피해 과외수업이 늘다 보면, 학원보다 더 비싼 과외를 듣게 돼요. 또한 일요일에 나는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더 부담될 것 같아요. ▶서명찬 (진주고 2학년)

나는 학원 일요일휴무제에 대해 찬성한다. 평일이나 주말이나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를 병행하며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하루쯤은 학업에 벗어나 자유로운 활동을 할 기회를 주는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인하여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찬성한다. ▶정한솔(제일여고 2학년)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공감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남겨 주세요.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 1예 재돈파

애들아 안녕 아파 점심 먹고 학교에서 이걸 보고 있었지. ㅋㅋ
우리 처음에 애들끼리 별로 안 친했을 때 서로서 먹서먹하고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게 다였는데 애들끼리 낯아서 놀러도 다니고 하나까 되게 친해졌네. 서로서로. ㅋㅋ 우리 동우, 학교로부터 친했는데 지금은 더 돈독해졌네! 매일 나 뭐 없으면 뭐 사주고(물론 엄키지만...) 챙겨주고 해서 고마워 ㅎㅎ. 또 우리 채현이, 너는 좀 막아야해. 매일 우리 귀에다 대고 "타카야이스크립" 하면서 애들 괴롭히고 보글보글 공룡마냥 거품을 뿜어내는 너란 참. 근데 너 때문에 참 재밌어 고맙다! 그리고 우리 승빈이, 복학하고 참 고생이 많지. ㅋㅋ 매일 애들이 복학이랑 바순으로 놀리지만 다들 너 놀리는 거 재밌어서 그러는거야? ㅋㅋ 암튼 승빈이도 애들 말 잘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모습 보면 참 애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어. 고마워! 또 우리 대욱이는 매일 아침연습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 하는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너야. 너 때문에 나도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달까?? 심성도 착하고 ㅋㅋ 고맙다! 또 우리 희원이, 답이라고 놀림도 많이 받고 막기도 많이 막아도 제일 재밌는 친구 ㅋㅋ 창원 부심도 있고 좀 멍청한 끼가 있어

서 그렇지. 그래도 착하고 때일 웃겨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 웃음이 끊기지 않는 것 같아. 마치

막으로 우리 선우, 축구선수 할 것 같이 생겨서 피아노 치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참 특이해 ㅋㅋ. 요즘 내가 축구에 관심 생긴 이유도 너 때문이고 잘 가르쳐 줘서 고마워!
쓰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우리 3년, 아니 더 오래오래 봐야하니까 싸우더라도 빨리 풀고, 각자 전공 열심히 하면서 놀러도 많이 다니고 돈독하게 지내자! 그리고 우리끼리 사진 좀 많이 찍자. 사진 고르려고 하나까 애들 몇명이 계속 빠져있네. ㅋㅋ 2019년이 곧 끝나 가는데 2020년 되면 바로 놀러 가는거다!! 사랑한다.

— From 민석



T. 진양고 2-4반



하아 마이 베스트 프렌즈 학교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엇저게 같은데 벌써 3학년이네. 항상 공부도 1등이고 노는 것도 1등인 우리 반인데 헤어진다 는 게 너무 아쉽다. 너희들이랑 같은 반 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영광이었던. 다들 3학년 되어서 열심히 하고 모두의 앞길을 응원할게 마지막으로 공짜선생님 감사합니다

— From 자랑스런현명

T. 세려에게

세려야 내가 만날 니한테 장난쳐서 힘들게? ㅋㅋㅋ
음 니한테 장난치면 재미있어 진짜. 그래서 계속 장난치는 거거든. 그래도 우리 3년 같은 반인데 남은 3년 잘 해 보자꾸나. 자식아~



— From 세려 큰 행님 성민

T. 민수



간다고 했자나.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와서 너랑 재밌게 놀았던 거 같아. 그래도 예고 가서 니 좋아하는 거 하는데 한 번씩 가지 말라고 투덜거렸던 건 미안해. 연락만 하지 말고 제발 좀 만나자 민수씨. ㅎㅎ

— From 상운

피아노 장인. 민수야~ 너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나를 알고 있었지. 그만큼 오래 봤었는데 고등학교 와서 피아노 실력 너무 아깝다고~ 제대로 하면 대박일거라고 몇 번씩 말한 적 있는데... 그 뒤에 너 예고로 전학

T. 김주



반갑다. 오이야. 너의 형님 이성민이다. 군 생활 어떤데? 오이야. ㅋㅋ 이 형은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중이다. 니도 잘 적응하고 있을거라 믿는다. ㅋㅋ ㄹㅇ 보자 보고 싶구나! 그리고 내 생일 선물 빨리 주라. 계좌에 3만원 꽂아 놔라. 보내 놓을게. 벌써 3개월이 지났다. 암튼 말이 길어졌네. 군 생활 잘해라. 불평 하지 말고~ 오이야. ㅇㅇ이가 보고 싶으면 형한테 말하고 군 생활 열심히 해라고 쓰는 거다.^^

— From 성민

T. 6반 친구들에게

안녕 시끄러운 우리 반 ^^

평소 편지 잘 안 써서 오글거리는데 그냥 쓸게~ 우리 반 참 재밌었는데 곧 반이 바뀌어서 아쉬워. 2학년 되도 6반 정조 잊지 말구 ㅎㅎ. 나랑 놀아주느라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저희 답

임쌤 구명뱀뱀 저희 답을 맡느라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당 마지막으로 우리 6반 사랑한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즐겁게 보내자. ㄹㅇ

— From 김민규



T. 동명 노짱



노준혁 안녕!!! 필통 신문을 보다가 이런 편지 쓰는 내용이 있더라구. 그래서 너한테 써볼까 생각해서 써봤다. 임마! 내가 편지 잘 못쓰지만 귀엽게 봐주라! X
요즘 너가 힘든 거 잘 알아. 니가 힘든데 주변에는 제대로 알아주는 애들이 없다고.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너랑 만나는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나 요즘 시간 있을 때 마다 너 있는데로 가. ㅎㅎ 너가 아저 보고 힘 많이 냈으면 좋겠네. 이거 보려면 학교 가야하니까 학교도 꾸준히 다니고! 노준혁!! 더 이상 쓰면 남사스러우니까. 여기 까지 할게. 우리 평생 친구 하자!

— From 재빈

T. 치질녀 친구들

안녕 바보들~ 나는 호주랑 뉴질랜드를 정복하고 온 강치질녀야. 다시 호주로 돌아갈지 한국에서 계속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까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셔서 고마워.

작은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나한테는 엄청 크게 와 닿는 말이었고 한국 온다고 시간비우고 만나줘서 고마워. 근데 웃긴 게 하나같이 다 얼굴에 살려서 돌아 왔더라. ㅋㅋ 앞으로 내가 괴롭혀도 나랑 평생 같이 놀아줘야 해. 이 편지를 본 펍수들은 나한테 당장 연락을 보내시오! 안 뿌리면 페이드 오수가 집에 찾아와서 봉사합니다. 메롱!

— From 바보



T. 153cm요정에게

요정이... 곧 1학년이 마무리가 되는데 내 때문에 중학교 와서 고생이 참 많았다. 앞으로 내가 잘 못하더라도 잘 챙겨줘. 그리고 공부도 많이 가르쳐 주. ㅎㅎ
긴말 안 한다. 앞으로도 잘 지내자 화이팅!!

— From 태민



T. 하나뿐인 짬들



지? 우리 중학교 때 여가저기 족흥으로 놀러도 많이 갔었는데 이제 바빠서 가기 힘들다. ㅠ ㅠ 그래도 잊지 말기. 꼭 다시 놀러가기. 사랑해 올짬들~

— From 최짬

한 달에 한번 볼까 말까한 올 가는 선영 설해, 애들아 보고 싶어. 니네 생각 나서 이거 쓰네~ 이거 편지 쓰라고 할 때 바로 생각났었어. 감동이지? 놀랐

To. 잘하는 거 없는 시원이에게



내가 많이 갈수록 정말 사랑하는거 알잖? 고등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 이겨봐야지! ㅋㅋ 열심히 하고 우리 평생 보자야~

— From. 감자주장

To. 사춘 수연~

수연이 안녕!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너라서 이거 보고 너무 감동하진 말구. ㅎㅎ 중학교 때 진짜 맨날 붙어 다닌 거 같은데 네가 너무 컴뱌였잖 나. ㅋㅋ 그때 우리 너무 행복했고 재밌는 중학교 생활이었잖! ㅠ ㅠ 평생 중학 생일 것만 같았던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곧 고교 되는 게 진짜 믿기 싫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 나에게 따듯한 말 대신 네 특유의 장난기 가득한 위로해 준 거 기억나? 고마웠음. ㅎ 각자 고등학교 가고 수연아 나 없이도 학교 잘 다니고 다 컸네. ㅋㅋ 또 지금 생각해보니 중학교 때

힘들었던 일은 힘든 일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 이번에도 시험 망쳤다고 장장델거 같은데?? 시험 못 봐도 나중에 넌 잘 살고 있을거 같음... 그니까 지금 힘든 모든 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웃고 넘겨버릴 수 있는 추억이 될거니까. 너무 맘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 할머니 되어서 얼굴 보고 웃고 있을 거 생각하니까 좀 무섭다. ㅎ 어쩔 수 없이 네가 또 내 옆에서 조잘조잘 거리는 거 받아주고 있어야지 뭐 ~

— From. 민승태지



To. 진주기공 1-4친구들



편지 쓰니까 어색한데, 우리 반 1년 동안 트러블 없이 잘 지내서 너무 좋은 거 같다. ㅎ 못 난 반장 잘 따라주셔서 정말 고맙고 남은 기간 동안 더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서 기공 최고 반 만들어보자! 사랑한다. 에너제틱 파이팅!

— From. 진주기공 1학년 이영광

To. 이연서

ㅎ 이연서 강인원이 편지 쓰라고 해서 쓰는데 특별히 니한테 써 줄게. 근데 니 내 생일선물은 언제 줘? 벌써 3달이 지났는데 니 진짜 레전드다. 아무튼 그건 빨리 주고 공부 좀 해 맨날 한다고 해놓고 안하잖아 니... 절 좀 들어야겠다. 빨리 약속 잡아 영화 보러가자. 나 노래실력 엄청 늘었으니까 기대해. ㅋ 근데 니 너무 웃겨~ 얼굴만 봐도 웃게 죽을 거 같아. ㅋ 니 방학되면 딴 지역 놀러가자. 난 방학이라서 너무 좋아. ㅎ 연서, 벌써 고2야. 시간 진짜 빠르다. 우리 중학교 때 준채이었는데 중학교 때 그리지 않냐~ 애들 끼리 니 완전 괴롭혔는데 너무 재밌었어. 중학교 체대 때 사진. 우리 완전 못 푼다. ㅎ 아 맞다. 우리 문인옥쌤도 보러가야지. 근데 난 한번 갔다 왔는데 같이 한번 가자. 어쨌든 결론은 빨리 만나서 놀자! ㅋ ㅋ 알라뷰.

— From. 여운서



To. 하피

애들아~ ㅎ 나 누구게 ㅎ 우리 중딩 때처럼 다 같이 놀고 싶다. 니네랑 하고하는 게 제일 재밌었는데. 다시 돌아 가구 씬을 제발 만나자! 우리 여름 때 만나고 한 번도 다 같이 본적 없었어 야. 그니까 부산도 가고 어디든 가서 빨랑 놀자. 제발 단독에서 놀자하면 반응 좀. ㅠ ㅠ 애들아 사랑해애애 우리 스승까지 연락하자. 쥬쥬 오예진, 이지예, 정예은, 민지우, 이서은, 김보름 보고 싶다!!!! 사친은 서원이 왕따 당하는거임. 미안. ㅎ

— From. 하지원



To. 삼현여고 권선해 제일여고 오지민

안녕 선해야, 지민아~ 와 완전 오글거려. 그래도 서프라이즈니까!! 열심히 써본다. ㅎ 진짜 삼현 졸업하지 얼마 안된 거 같은데 우리 벌써 고2다. ㅠ ㅠ 이제 곧 고3이 되겠지. 우리 수능 치고 20살 되면 같이 술 마시고, 전에 만든 싸인 볼 띄우기로 한 거 알지?? 시험기간만 되면 연락이 뚝 끊겨 버리지만 지금은 방학이니까!! 그나마 놀 수 있는 마지막 방학이니까...

오지민 기숙학원 가기 전에 리우티 정모 가져야지. 전에 맨날 영통 약속 잡았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하는 거 서운하당. 이 친구들아. 20살 되면 서울에서 만나자. 인사올 가져! 마이럽들!!

— From. 서희원



To. 진양고 1-2반



안녕 1-2반 친구들! 우리 학기 초에 기억나냐. 다들 어색해서 서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벌써 1년이 다가고 12월 달 시험도 끝이 났네. 체육대회 1등도 하고 운동도 잘하는 멋진 2반이었는데 벌써 헤어지는 게 많이 아쉽네. 그래도 니들 이랑 같은 반이라서 재밌고 행복했다. ㅎ 내년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알라뷰! 우리반애들은 뭐 해도 잘 할 거야. ㅎ

마지막으로 이경례 단임쌤 감사하구 사랑합니다. 내년에도 쌤한테 경례 할게용!!

— From. 전철 부반장 재혁

To. 필통이들에게

안녕 애들아... 나는 지영이야. 이렇게 우체통에 쓰는 건 나밖에 없을지? ㅋ ㅋ 이번엔 졸업하는 친구들이야. 정말 수고 많았고 나랑 1년 반 혹은 1년 동안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 이제 고3 되는데 1년 동안 힘내서 다들 원하는 대학 다 붙어서 웃는 모습으로 내년에 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년까지 힘내 줄 후배님들도 그동안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마워! 여튼 2019년 수고 많았어~ 2020년은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 From. 지영



To. 하람

농안 농안 하배(하람 배프)~ 난 너의 예배양.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안본지 거의 일년이 다 되잖. ㅠ ㅠ 가가 이 살아도 하람 나가 너무 공부한다고 풀듯 한다고 바빠서 못 만나네. ㅠ 난 나가 내

페메 안 볼 때면 가끔씩 섭섭해. 그런데 난 다 이해해! ㅎ 가끔씩 나가 전화해 줄 때면 진짜 기쁘고 미안 할 때도 많아. ㅠ 삼학년 때 니랑 경진이라 정연이가 깜짝 생일 파티 해줬을 때가 생각 나더라. ㅠ 그때 진짜 최고의 생일 선물이었어. 그때 차린 사렸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구... 생일 때 친구들한테도 초코파이 케이크 나눠봤잖!! ㅎ ㅎ 진짜 하람 너는 잊을 수 없는 친구고 영원한 친구야.

그리고 하람 니 눈물 많잖아. 그때마다 연락해. 난 학교에 있어



도 나가 연락하면 바로 볼 수 있어. ㅎ ㅎ 연락 안 보면 예배(예림이 배프) ㅋ ㅎ ㅎ 그리고 고등학교 생일이 된 지금도 많이 힘들고 하겠지만 진짜로 너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멋진 연주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힘들고 지치거나 안 좋은 일 있거나. 어떤 자식들이 괴롭히면 바로 말해. 어벤져스처럼 날아갈래. 그리고 진짜 보고 싶어. 진짜 너가 나한테 해준 것들 너무 좋은 기억이고 추억이었어. ㅎ ㅎ 그리고 앨범에 반 정도는 하람 니랑 같이 찍은 사진 이더라. 나 진짜로 앨범 그거 맨날 보면서 혼자 웃곤해.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감동 받아서 울지마. ㅎ ㅎ 너무 갔잖?? 애틋 베리 쏘마치 보고 싶어. 사랑해 내 친구 하배. miss you and i love you.

— From. 예림

To. 2-2반 친구들

2-2반 친구들 안녕! 이렇게 쓸 기회가 생겨서 적적여 본 다. ㅋ ㅋ 고등학교 가서도 잘 지내지? 공부 열심히 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모이자. ㅋ ㅋ 덕규야 분발하자. ㅎ

— From. 석시규티지헌



2020 필통 신입기자 정기모집



안녕하십니까?

필통에서 2020년도를 이끌어 갈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의 학생기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필통에서는 글 잘 쓰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열정과 책임감이 넘치고 배려심 많은 매력적인 사람을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멋진 시간을 필통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
- *모집인원 : 15명내외
- *모집대상 : 진주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휴학생, 퇴학생도 지원 가능함)
- *모집방법 : 서류전형-면접으로 합격 통지함. (면접통과후 기자학교 수료)
- *응시방법 : 필통 홈페이지에 있는 기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로 보내주세요. (feellong1318@hanmail.net)
- *문의 : 전화 070-8628-1318 / 카카오톡 아이디 feellong1318



1999년 시작한 진주사천청소년시문사 필통이 2012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다시 출범했습니다.
필통은 2013년 진주청소년 신문 복간, 팟캐스트방송, 필통멘토스쿨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옥봉동 남강로 720 tel. 070 8628 1318 mail. feelton1318@daum.net

경남 진주시 옥봉동 남강로 720 tel. 070 8628 1318 mail. feeltong1318@daum.net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마련된 <네모네모로직 응모하기>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i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2019년 12월 31(화)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첨을 통해 32분을 추첨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30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
을 각각 드립니다.(별당가능) 당첨되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네모로직이란?

칸이 있는 숫자퍼즐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통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무지 높은 것 아니죠^^

〈로직의 기본 규칙〉

-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 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illegible]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1월호 로직문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1등 - 문상 1만원권(2명) : 강민재(대교) 2-10/ 류어진(진강) 2-5
2등 - 문상 5천원권(3명) : 김현우(동명) 1-3/ 유원석(동명) 2-5/ 이하은(진강) 2-10/ 박진형(경해) 1-1/ 최소윤(경해) 2-8/ 김은정(성영) 2-5/ 정승선(성영) 1-11/ 박지현(주요) 2-3/ 김나연(주요) 1-1/ 천동현(동명) 2-6/ 박상민(동교) 2-5/ 박민재(대교) 2-9/ 송동호(대교) 1-6/ 조유현(주요) 3-8/ 김민선(경남정보) 2-1/ 권도현(시대부) 1-4/ 이주희(재일) 1-6/ 박동희(재일) 2-9/ 김민석(성영) 2-7/ 김지석(성영) 1-5/ 김민석(주요) 1-7/ 가희(재일) 2-3/ 김준희(동명) 1-2/ 김민준(대교) 3-3/ 정승연(아원) 1-2/ 안우경(개원) 2-4/ 원아연(경해) 2-5/ 정다은(주요) 3-8/ 이혜민(부강) 3-1/ 정수민(동명) 3-5/ 송상현(주요) 2-5

* 당첨된 분은 학생이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통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Tel 070.8628.1318 / H/P 010.3881.8808 전화/카톡으로 메세지도 남겨주세요)

4.16 가족극단 노란리본 진주 초청공연

언제 : 2020년 2월1일 오후4시 장소 : 현장아트홀
문의 : 세월호진실찾기 진주시민의모임 / 010-7364-0527



필통지정 배부처 | 필통은 진주시 관내 모든 중, 고등학교에 무료로 배부 됩니다.

〈신안-평거초〉 아이들사랑점 신평점, 진주문고, 행복중심상생점, 여성민우회, 담미도서관(D-BOX), 행정가심사업회 〈상봉동〉 문학당서점, 형설서점 〈시내권〉 아름다운가게, 대양서적, YMCA, 서경방송, 다원, 죽향 〈철암-강남동〉 커피포트, 동훈서점, 안카페, 몽글, 단디커피, 모두의아파트, 소문난서점 〈도동〉 진양서적, YWCA, 달팽이도서관, 드림문고, 화문서점, 미하도서관 〈호락동〉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